



“Our voice has been clear,
calling for **solidarity, unity and hope**”

António Guterres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CONTENT

인사말	06	II. 코로나19 UNGC 회원사 대응 사례					
I. 코로나19와 기업 지속가능성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에 기반한 코로나19 대응	08	국민연금공단	18	유한킴벌리	54	한국세라믹기술원	90
코로나19 비즈니스 가이드	10	(주)두산	22	인천시설공단	58	한국임업진흥원	94
		두산인프라코어	26	코오롱인더스트리	62	한국중부발전	98
		부산경제진흥원	30	포스코	66	DGB 금융그룹	102
		부천여성청소년재단	34	포스코인터내셔널	70	KT	106
		서울주택도시공사	38	한국농어촌공사	74	LG전자	110
		성남도시기개발공사	42	한국무역보험공사	78	LG화학	114
		슬로워크	4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82	SK텔레콤	118
		아모레퍼시픽	5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86		

인사말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이 전 세계인의 삶과 지역사회 그리고 비즈니스에 전례 없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사람과 물류의 이동에 제한이 생기면서 기업의 비즈니스 연속성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국은 '투명성', '창의성', '연대'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 어떤 국가보다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우리 기업들이 앞장서서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시장과 공급망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 기민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우리 기업들의 귀중한 혁신 대응 사례를 한데 모아 사례집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집에 수록된 귀한 사례들은 전 인류의 건강을 증진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데 영감을 주는 한편, 향후 어려움을 이겨내는 밑거름으로써 우리 기업들에게 큰 자산이 되어 줄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포함하여,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례없는 강력한 협력과 글로벌 솔루션이 계속적으로 요구될 것입니다.

인류의 일원으로서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사회적 포용을 확대해 나가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우리가 만들어낸 대부분의 진전은 협력과 파트너십에 기인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특히 오늘과 같은 코로나19의 위기속에서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동건 회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2020년 5월 28일

코로나19와 기업 지속가능성

– UNGC 10대 원칙 기반 코로나19 대응

– 코로나19 비즈니스 가이드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에 기반한

코로나19 대응

인권

- 코로나19 대응 및 지원책에 모든 사람들이 인종, 피부색, 장애, 나이, 성별, 종교, 정치 성향 및 기타 의견, 국적 및 계층, 재산, 출생,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과 관계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시시오.

-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의 요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노동

- 직원 및 비즈니스 파트너, 특히 중소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며, 유연성과 공감, 그리고 연대를 기반으로 대응해주시시오. 재정적 손실을 줄이려는 노력이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희생시켜서는 안됩니다.

- 탄력근무 중에도 소득과 혜택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시오. 누군가 질병에 걸리거나 격리가 되어, 혹은 아픈 가족 구성원을 돌보느라 출근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특히 돌봄 노동의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여성 근로자나 저임금, 계약직, 사회적 안전망에 의한 구제를 보장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고용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해주시시오.

- 현재 효력을 가진 계약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행해주시시오. 서비스 제공 및 납품 할당량에 대해 융통성 있게 대응함으로써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양질의 작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급자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 개인 위생(깨끗한 손 씻기 등), 주변 환경(물품 및 시설 깨끗이 소독하기), 업무 관리(최대한의 재택 근무를 통한 대인 접촉 줄이기) 등을 통해 직원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는 바이러스 예방 원칙을 시행해주시시오.

환경

- 재택 근무나 가상 회의 등을 장려함으로써, 통근 및 출장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택 근무 및 가상 회의가 탄소발자국에 주는 긍정적 임팩트를 측정하여, 현 상황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시오.

반부패

- 포용적이며 투명한 대응책들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십시오.

- 귀사의 제품 및 서비스가 윤리적으로 판매 및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시오.

추가 지침

- 기업 및 CFO들은 은행 및 투자자들과 협력하여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함으로써 코로나19가 보건, 식품, 물류 등과 같은 필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은행들은 현재 가장 심각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과 필수품을 제공하는 기업군에게 예외적인 신용 한도를 제공하고, 기존 신용 제품에 대한 상환 조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상업 및 개발 은행은 자선 및 기부 기금을 활용하여 혼합 금융상품을 구조화하고 필수적인 예방 및 완화 활동을 지원하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보험 회사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직원 및 기타 근로자에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단기 장애 및 실업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의료 및 의료 보험 회사는 코로나19 관련 중환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필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위해 우수 고정 수입 제품에 대한 일시적 상환 조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임팩트 투자자는 필수적인 예방 및 완화 활동을 지원하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즈니스 가이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각국 정부들은 자국민들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는 정당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가장 빈곤한 국가들의 상황을 모두가 함께 돕지 않는다면 결국 그 피해가 자국민에게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모두가 안전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사무총장

코로나19 사태 개요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포하였습니다. WHO는 파트너 국가들에게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바이러스를 신속하게 포착하고 확진하여 심각한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는 전 인류, 공동체, 그리고 경제에 영향을 주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빠르고 확실한 조치를 요구하는 질병 재난 사태입니다. 이는 영세/중소기업들(MSMEs)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상당한 사회경제적 영향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WHO는 모든 해당 국가들의 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략적 방지 및 대응책(Strategic Preparedness and Response Plan - SPRP)'을 개발했습니다. SPRP 는 국가 및 지역별 운영 계획을 개발할 때 모든 국가 및 국제 파트너의 노력을 안내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바이러스에 대해 얻은 지식을 전략적 행동으로 유도하는 보고서입니다.

SPRP와 더불어 '코로나19 범인류적 대응책(COVID-19 Global Humanitarian Response Plan)'에는 현재 피해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과 빈곤국들을 위한 필요 조치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UN 인도지원국(U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이 발간한 본 대응책은 WHO와 그 외 UN 산하기구들의 의견을 집대성했습니다.

UN 사무총장 보고서 '함께 나누는 책임, 세계적 연대: 코로나19 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들에 대한 대응(Shared Responsibility, Global Solidarity: Responding to the socio-economic impacts of COVID-19)'은 민간부문이 현 상황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확진자 408 만명	확인된 사망자 28 만명	확진자 발생 국가 218 개	WHO 위험 평가 매우 높음
----------------------	-------------------------	---------------------------	---------------------------

출처: 세계보건기구(WHO), 2020년 5월 12일. WHO 상황보고

UN은 모든 기업 및 기관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 및 사회적 거리를 보장하며, 건강 및 안전 지침을 준수하고, 재택 근무자에 대해 안정적인 임금을 제공해 모든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성 확보
2. 정부에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해
코로나19 연대 대응 기금(COVID-19 Solidarity Response Fund)에 기여
3. 기업 시설 및 경영 계획 재정비를 통한 재난 대응

기업의 참여 방안

기업은 코로나 감염 방지를 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보건 당국과 WHO의 권장 사항에 따라 코로나19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의 노동자, 지역사회, 그리고 고객을 보호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복구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염과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책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 출장, 재택 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증상 보고, 비접촉 업무 등). 더불어 기업은 자사와 공급업체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한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 가지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정지원
- 현물 기부
- 공동 옹호 (Joint Advocacy)

재정지원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WHO는 전 세계 국가들의 바이러스 예방, 확진 및 대응에 도움을 주며 세계적 연대를 통한 조치 마련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국가들, 특히 보건시스템이 허술한 국가들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정적 지원은 바이러스 확산 추적 및 파악, 확진자 치료, 최전선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 물품 및 정보 제공 등에 도움을 주며 코로나19 검사 키트,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노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WHO와 그 외 관련 기관들의 팬데믹 대응 노력을 돕길 원하는 개인 및 단체는 '코로나19 연대 대응 기금 (COVID-19 Solidarity Response Fund)'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통해 여러 국가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고 특히 보건시스템이 약하고 세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기부금은 모두 '전략적 방지 및 대응책(SPRP)'의 활동에 이용되며 이는 아래의 활동들을 포함합니다.

- 바이러스의 확산을 추적하고 파악하기 위한 연구 및 활동
- 확진자들이 필요로 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
- 최전선 노동자들을 위한 마스크, 위생장갑 및 기타 보호장구 구입 및 전달
- 코로나 관련 백신 개발, 치료 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

기업 및 재단 기부와 관련해서는 COVID19Fund@unfoundation.org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부문의 국제적이고 협력적인 대응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고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가는 것을 예방하며 빠른 회복을 위한 비즈니스 연속성을 촉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은 현재와 같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방향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 리세 킹고 (Li 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은 또한 ‘유엔 코로나19 대응·회복 신탁 기금(The United Nations COVID-19 Response and Recovery Multi-Partner Trust Fund)’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보건개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소득국 및 중소득국을 지원하는 유엔기구 간 금융 신탁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WHO SPRP와 ‘코로나19 에 대한 세계 인도주의 호소문(Consolidated Global Humanitarian Appeal for COVID-19)’의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도 일조합니다.

‘유엔 코로나19 대응·회복 신탁 기금(COVID-19 MPTF Fund)’는 경제난과 사회적 분열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지원합니다.

- 보건 비상 사태 해결
- 사회적 영향과 경제 대응 및 회복에 집중
- 국가 피해 회복 지원

본 기금은 해당 국가 고유의 과제와 기회에 초점을 두어 인도적, 회복적 및 개발적 행동 전체에 걸친 강력한 상호관계와 상승효과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해당 기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Olga Aleshina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시니어 포트폴리오 매니저: olga.aleshina@undp.org

현물 기부

I 코로나19 물품 패키지 (COVID-19 Disease Commodity Package; DCP)

현물 기부를 통해 현 상황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은 WHO의 ‘코로나19 물품 패키지(COVID-19 Disease Commodity Package; DCP)’를 참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DCP 는 코로나19 예방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나열한 데이터 시트입니다.

DCP 는 검사, 예방 및 제어, 환자 관리의 세가지 요소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패키지는 검체 채취 및 진단, 선별 및 스크리닝(PPE), 보조적 치료, PPE 및 보건 시설과 같은 넓은 분야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들을 포함합니다. 각각의 활동들은 구체적인 물품들을 필요로 하며, 해당 물품들은 모두 WHO 소속 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정해졌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connectingbusiness@un.org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 기타 물품 및 서비스

그 외 다른 물품 및 서비스(특히 의료 관련) 지원을 희망할 시, connectingbusiness@un.org 에 문의하십시오. 기부 제안 시 기부물품 종류, 기부물품 전달을 위한 타임라인, 물품 전달 및 기타 비용

제공 의사 등 최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면, 기부될 물품/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기관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피해 지역 내 직원, 공급업체, 고객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미 기부 대상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의 경우 기존 연락망을 통해 직접 기부 물품을 전달할 것을 권장합니다. 기부될 모든 아이템은 WHO의 기준에 충족해야 하며 필요 우선순위에 들어야 합니다.

UN와 협력하여 코로나19 범인류적 대응책 (COVID-19 Humanitarian Response Plan) 지원하는 방법

기업의 산업군, 위치, 관심사에 따라 기업들은 UN의 특정 기관과 협업을 원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정보는 코로나19 대응 기관들의 중점 분야에 대한 정보와 각 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공합니다.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농가 소득 지원 및 생계 원조를 통해 취약계층 가정들의 식품 접근성을 안정화하고, 주요 식품 공급 체인의 지속성을 보장하며, 식품 공급 과정에서 코로나19 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 **국제이주기구(IOM)**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페이지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IOM 의 계획, 자금 요구 사항, 주요 자원 및 격주별 상황 보고서 관련 내용을 제공합니다. IOM 의 대응책은 취약계층을 위한 이주자 포용적인 지원 방안이 전체 코로나19 대응 노력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IOM 은 전염병에 특히 취약하고 지원을 받기 어려운 난민, 국내 실향민(IDP), 이주민 및 지역 사회를 보호, 지원 및 옹호하며 코로나19에 대한 지원 및 핵심 정보 제공을 돕고 있습니다. IOM은 또한 이주 노동자 보호에 대한 기업 가이드라인을 발간했습니다.
- **유엔개발계획(UNDP)**은 각국이 필요로 하는 의료 물품 조달, 디지털 기술의 신속한 활용, 의료 종사자 급여 지급 보장과 같은 대응책을 통해 각국의 보건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각국이 코로나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고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며 사회가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평가와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과 같은 긴급한 복구 조치를 지원합니다. 국가, 지역, 글로벌 금융 기관 및 민간 부문과 협력 중인 UNDP는 정부, 기업 및 지역 사회가 코로나에 준비, 대응 및 회복하기 위해 올바른 재정적 지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무부, 금융 규제 기관 및 정부의 각 부처와 협력할 예정입니다.

- **유엔인구기금(UNFPA)**는 안전한 출산, 정신 건강 및 심리적 지원, 가족 계획 및 젠더 기반 폭력을 다루는 서비스의 보장을 위해 국가 및 지역 보건 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합니다. 또한 1차 예방과 피해자 낙인을 줄이기 위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지역사회 참여 및 위험 감소 메시지를 강화하고 자가격리 중인 생식가능연령(Reproductive Age)의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중요한 안전 출산 - 글로벌 대응책(Safe Delivery - Even Now Coronavirus Disease Global Response Appeal)’을 참조하십시오.

- **유엔해비타트(UN-Habitat)**는 도심 주거지, 특히 임시 거주지 및 빈민가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인구를 위한 코로나19 대비 및 대응책을 지원합니다.
- **유엔난민기구(UNHCR)**는 정부가 인도주의적 기준을 준수하고 보호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요구가 고려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위생 관행에 가장 큰 위험에 놓여있는 수용소, 임시 거주지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타깃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WASH(Water, Sanitation, and Hygiene) 위생시설의 증편, 위생 물품 공급 및 의약품과 의료 물품의 긴급 조달, 입원 및 외래 서비스, 집중 치료 및 매장 시설 또한 강화할 예정입니다.
- **유니세프(UNICEF)**는 여성, 어린이, 그리고 가족이 코로나 예방 및 도움 요청 방법을 숙지하고 지역사회, 교육 및 보건 시설에서의 감염, 예방 및 통제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및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와 여성들이 필수 건강 관리, 교육, 아동 보호, 젠더 기반 폭력 관련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현재 유니세프는 기업들을 위한 실무 지침서를 발간 준비 중이며, 최근 '유연근무제 및 효과적인 직장 내 실천방안에 대한 고용주 지침(Guidance for Employers on Flexible Work Arrangements and Other Good Workplace Practices) (COVID-19)'을 발간했습니다. '어린이와 가족에 대한 코로나19 기업 지원 방안 (How Business Can Help Reduce the Impact of Covid-19 on children and Families)'에 대한 또 다른 기업 실무 지침서는 유니세프 웹사이트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 **세계식량계획(WFP)**은 오랜 경험과 비상대응, 물류 및 공급망, 비상통신, 영양 및 기타 주요 분야에 대한 방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그 밖에도 기업들은 국가별 공동자금(Country-based pooled funds, CBPF)에 기부함으로써 구호 활동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CBPF 를 통해 국가 및 국제 NGO, 적십자사/적십월사, 그리고 유엔 기관 및 IOM 에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동 옹호

비즈니스 리더들은 그들의 입지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동 옹호 활동을 펼치고, 유엔 및 정부기관과의 협력 아래 혁신적 솔루션을 개발 및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옹호 활동에 포함될 주요 메시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기업의 단독 행동보다, 공동 행동에 참여하고 타 기업들에게 동참할 것을 독려할 때,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 그 예시로, 비즈니스 리더들은 영향력을 바탕으로 정부가 개방된 무역을 유지할 것을 장려하고 필수 물자 뿐만 아니라 의료진 등 인도주의 활동에 필요한 인력의 육로, 수로, 항공기를 통한 이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업들은 유엔 기업 연결 이니셔티브(UN Connecting Business Initiative, UNCBI), 유엔글로벌콤팩트, 그리고 지역 상공회의소 등 국가 기반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 행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창작(Creative) 산업에 대한 글로벌 행동 요청

유엔은 효과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공유할 수 있고, 확산 속도를 늦추는 방법으로 공공 보건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창작 산업에 대한 글로벌 행동 요청(Open Brief Global Call to Creatives)을 최초로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은 창의적인 재능을 활용하여 주요 공중 보건 메시지를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으며, 기존 메시지를 기업 커뮤니케이션에 통합하고 미디어 공간을 제공해 직원들과의 정보공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참고사항

- WHO 는 이번 사태에 대응하여 개인보호장비(PPE)의 충분한 공급을 위해 민간부문과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PPE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WHO 는 물품 조달율이 낮은 국가와 지역에 대해, PPE 의 비축량을 줄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국가 및 기업이 WHO 와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모든 지원 활동은 인간성, 공평성, 중립성, 독립성의 원칙에 의거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원주민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여성의 요구에 부응하고 여성 리더십을 지원함으로써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인도주의적 대응에 대한 기업 참여의 핵심입니다. 또한 인도주의적 행동의

중심에 지역사회를 두는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시기적절하게 지원하는데 필수적이며, 지역 기관, 사회 네트워크 및 시민 사회는 이러한 노력에 대해 협력해야 합니다.

- 유엔의 대응 노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유엔과 기업 간 협력(Cooperation between the UN and the Business Sector)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기업들의 기여 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캐런 스미스 (Karen Smith),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비즈니스 연결 이니셔티브(Connecting Business initiative) connectingbusiness@un.org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대응에 있어 보건당국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지금, '고용주의 역할은 보건당국 다음으로 핵심적이며 이는 건강보험, 교육, 제약, 정부, NGO, 언론의 역할보다도 더 중요하다."

- 에델만 신뢰도 지표 (Edelman Trust Barometer), 2019 년 3 월

“We must all acknowledge that ‘business-as-usual’ economic rules and policy tools no longer apply. These are unprecedented times.”

António Guterres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코로나19
UNGC 회원사 대응 사례



국민연금공단

UNGC 가입
2012. 10. 25



100세 시대, 국민의 든든한 평생 파트너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1999년 전 국민연금시대를 실현한 이래 노후소득보장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명실상부한 종합복지서비스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700조 원이 넘는 적립 기금을 관리하는 글로벌 Top 3 연기금 운용기관입니다.

공단은 국민연금이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적립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사업을 확대하면서 국민 안전과 인권,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고려한 사회적 가치 중심 경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연금가입자 지원제도 시행

공단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에 대해 올해 3~6월 기간 중 최대 3개월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는 추후 소득이 증가할 때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경제위기를 겪는 연금가입자가 체납으로 인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낮아질 수 있는 위험을 덜어 드리는 조치입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3개월 분 보험료 연체금을 일괄 징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단의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였습니다.

정부의 감염병 확산 방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공단은 콜센터에 '코로나19 능동감시팀'을 구성해 외국 입국자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도 수행하였습니다. 해외에서 대한민국 입국 시 모바일로 증상을 체크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앱'을 사용하지 않았던 입국자 1만 8천 여 명에게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증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70여 명의 해외 입국 유증상자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국가적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공단이 보유한 시설과 인력을 제공하여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방역 당국과 정부부처의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공단이 보유·운영 중인 국민 휴양시설 '청풍리조트'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임시 제공하고 지원 인력을 파견, 확진자가 급증하여 치료 시설이 부족한 대구경북지역의 경증환자 173명의 회복을 이 곳에서 돕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입국하는 국민 중 코로나19 경증환자의 치료를 위한 '경기국제2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도맡아 직원을 파견하여 시설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인천공항검역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여 명의 공단 직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접수 및 지급업무를 공단이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방지와 소상공인 부담 완화 정책 실시

공단은 제도적·업무적 지원뿐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직접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에 임직원의 자발적 후원금 등으로 마련한 1억 원 상당의 구호물품과 성금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일반인보다 감염 위험 노출이 높은 전국의 고령·독거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2억 원 상당의 방역 물품을 마련하여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됨에 따라, 동영상강의를 들을 노트북이 없는 청소년에게 학습용 노트북을 지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매출이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여 공단 소유 사옥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도 6개월 간 35%를 감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9개 입주 업체가 총 5억여 원의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선제적인 전사 위기대응 체계 전환

공단은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이 우려되는 1월부터 조직 운영을 비상안전 경영체제로 선제적으로 전환하고,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전사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이사장 직속 코로나19 비상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확산세가 중대한 고비를 맞이한 3월 초부터 24시간 긴급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주요 시설 폐쇄 시 핵심업무 지속계획(BCP)을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24시간 업무수행 체계가 필요한 기금운용분부는 선제적으로 핵심 인력을 전국 4곳으로 분산 배치하고, 건물 내 외부인 출입을 원천 통제함으로써 혹시 모를 집단 감염과 확산 위험 방지에 철저히 대응하였습니다.

대국민 서비스 안전대책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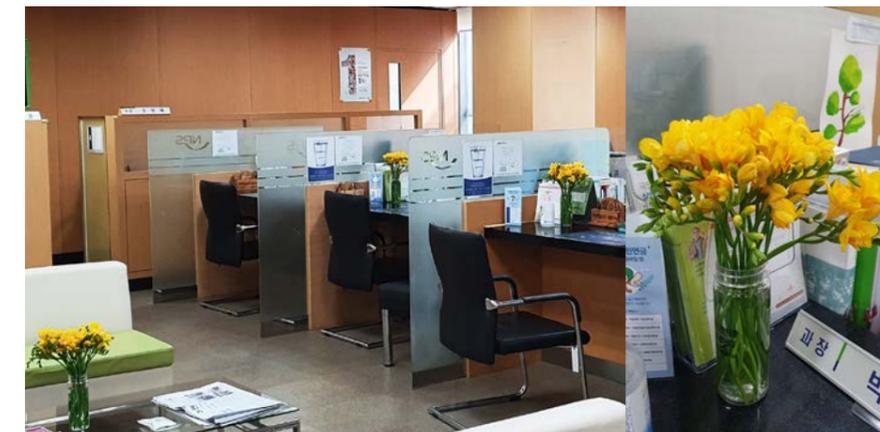
공단은 연금업무 상담과 신청접수 등 국민과 대면 접점이 높은 기관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 위험에 어느 기관보다도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는 즉시 고객인 국민 안전을 위한 지침을 시행하여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마스크가 없는 내방 고객에게는 마스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출장업무가 요구되는 업무의 수행 중지 및 완화, 민원실 안전가림막(투명 칸막이) 설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을 실시하고, 사무실 특별 방역소독 및 분사 및 전국 7개 지역본부에 열감지 장비를 설치하는 등 감염 확산 차단 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던 시기, 공단 보유 사옥 입주사 직원이 외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최초로 입주기업 확진자가 발생한 사옥에 대해 경영진이 긴급 현장점검에 나서특별 방역 및 임시 폐쇄 조치를 단행하고, 대규모 지역사회 확산이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 사옥의 일부 폐쇄 및 관련 직원의 재택-순환근무 실시 등의 노력을 통해 직원 뿐 아니라 공단 업무수행 과정에서 전염된 확진자는 한 명도 없는 대응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자산 보호를 위해 2월부터 위기대응 특별팀(TF)을 가동하여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모니터링)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자산가격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한 달 간 자금운용계획을 4차례 변경하여 장기 투자 관점에서 하락 중인 우량 자산의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 한편, 코로나19 이후의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방안을 모색·실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총력 대응으로 한국의 코로나19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빠른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타격과 실업으로 역사적인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공단은 앞으로 국민의 생활 방역을 지원하면서 한편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내수 확대와 고용 지원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화훼농가를 비롯해 지역생산품 구매를 확대함과 아울러, 실업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취업 역량을 향상시키는 한편, 지역일자리 사업을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하여 총 1,000여 명 이상의 지역 주민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주)두산

UNGC 가입
2014. 4. 22



㈜두산,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지속성장 기업

두산그룹은 124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으로 38개국에서 약 4만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두산은 두산그룹의 모회사로서 전자부품, 지게차, 유압부품, 수소연료전지, 정보통신, 유통 등 6개 사업 외에 신성장동력인 산업용 드론, 협동로봇, 물류 자동화 시스템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 약 15개 국에서 약 5천여명의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주)두산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2019년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부품인 전지박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재료 원천기술을 보유한 두산솔루스와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두산퓨얼셀을 한국거래소에 분할 상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두산은 기존 사업들의 실적 호조로 2019년도에도 매출 2조 8천억 규모, 영업이익 2200억 규모를 달성하며 전년대비 각각 6.5%, 9.7% 성장했습니다.

㈜두산은 사회적 역할에서도 변화와 혁신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 UN인권선언에 기반한 인권 정책을 공표한 ㈜두산은 국내외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 경영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의 스마트팩토리 구축과 경영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등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며 동반성장 실천에도 앞장 서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활동의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리스크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평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ESG 요구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으로 지속가능경영 실천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직원,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기후변화를 비롯한 지구환경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업활동에 대한 임팩트 측정을 기반으로 ㈜두산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한 ㈜두산의 코로나19 극복 노력

㈜두산은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이 방호복과 마스크 등 방역 물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0억원을 기탁하였습니다. 또한 제도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늦어질 수 있는 취약계층의 감염을 예방하고자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미혼모 가정 900여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의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와 지역사회에도 마스크를 지원하며 코로나19의 조속한 종결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연대하였습니다.

중국사업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사업장이 소재한 중국 상하이 메이리현 지방 정부에 총 3만장의 마스크를 지원했습니다. 메이리현 서기는 어려울 때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고난을 같이 하고 함께 난관을 극복해준 점에 대해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두산모빌리티노베이션은 자사가 개발하여 2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한 수소드론을 비가시권 비행을 통해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 부속섬 주민 약 500여명에게 마스크 15,000장을 전달하며 응급구호 솔루션을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두산모빌리티노베이션은 지난해 11월에도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가 주관한 70km 거리 섬과 섬 사이 응급 구호 물품 배송에 성공했으며, 올해 2월에는 세계은행 주관 '아프리카 드론 포럼'에서 수소드론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물류 인프라 구축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주)두산은 인류의 위기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기술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혁신적인 솔루션과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미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육성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사업 연속성 관리와 디지털 업무 플랫폼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주)두산은 코로나19의 영향 하에서도 경영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그동안 준비해왔던 사업 연속성 관리(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전 세계 지역별 환경과 변화를 바탕으로 임직원들의 지역 상황, 감염 가능성 등은 물론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사업환경을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한 경영 의사결정을 적시에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 협력사 및 지역사회의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한 대응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주)두산은 정부의 재난 위기 대응 가이드를 바탕으로 세부 대응 지침을 마련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집합교육을 비롯한 모든 단체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고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직/간접 접촉 또는 연계성이 존재하는 경우 14일간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등 사회적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재택근무'를 적극 독려하고, 업무를 위해 출근이 필요한 임직원은 '출퇴근 시간 자율화', '자기차량 출퇴근' 등의 활동으로 임직원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유연근무 제도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의 일환으로 어떤 상황에도 직원들이 협업을 통해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해온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 플랫폼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UNGC 가입
2013. 5. 29



두산인프라코어

1937년 한국 최초의 대단위 기계공장인 '조선기계제작소'에서 출발한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80여 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건설기계, 엔진, 각종 어태치먼트와 유틸리티 장비 등 모든 참여 사업분야에서 독보적 위상을 구축한 한국 최고의 기계 기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프라 지원 산업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건설기계 사업부문은 1977년부터 우수한 품질의 중대형 건설장비를 산업 현장에 공급하며 글로벌 인프라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두산(Doosan), 밥캣(Bobcat), 기스(Geith) 등 유수의 글로벌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굴착기와 휠로더에서 굴절식 덤프트럭까지 아우르는 라인업을 갖추고

전 세계 각지에 생산, 판매 및 유통망을 확보함으로써 명실 상부한 글로벌 종합 건설기계 회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엔진

엔진 사업부문은 1958년 한국 기업 최초로 디젤엔진을 생산한 이래,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버스·트럭용, 산업용, 발전기용, 선박용 디젤엔진과 가스엔진을 세계 각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엔진은 강화되고 있는 각종 환경규제를 만족하는 고품질, 고사양의 엔진들로 Full Line-Up을 갖추고 사회와 사람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술, Total Solution을 제공함으로써 Global Top Engine Maker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룹차원 기부

2월 27일, 두산그룹 차원에서 COVID-19 확산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 앞으로 1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본 기부금은 방호복과 마스크 등 방역물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기부 및 사회공헌

두산인프라코어는 사업장이 위치한 서울 중구 창신동 쪽방촌(동대문 지역)과 인천 동구 화수1/2동 및 만석동의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약 7,900개의 마스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하여 청소년 대상 '드림스쿨'(멘토링 기반 청소년 꿈찾기 프로그램)과 초·중·고등학생 대상 '주니어 공학교실'(만들기 활동을 통해 과학 원리를 가르쳐 주는 봉사활동)을 Teams 및 Zoom,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해외사업장에서는 1월 27일 COVID-19가 처음 발생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건설장비, 의약품 및 성금을 전달하였습니다. COVID-19 환자 긴급 수용을 위한 '뤄선산', '레이선산' 병원 건설 지원을 위해 굴착기 40대 및 운전자, 서비스팀을 배치하였으며, 110만 위안(약 1.86억 원) 상당의 의약품(방호복 및 마스크)과 구호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신속한 COVID-19 비상대응 체계 구축

두산인프라코어는 COVID-19에 신속한 대응 및 사업연속성(BCM: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관리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본사는 국내 확산이 격화되기 시작한 2월 25일부터 CEO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역별 공장장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지역별 비상운영 체계를 CEO에게 보고하고, 사업장 폐쇄 및 운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 및 그룹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내 COVID-19 비상상황실(TF)을 구축하여(CEO, EHS, 인사, 총무, Communication 및 생산 관련 부서) 비상상황 발생 단계별 보고 및 대응체계에 대한 process를 구축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예방을 위한 상세한 사전 안내 및 진행상황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유를 진행하였습니다. TF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직원 행동요령 가이드 배포 및 적용
- 임직원 대상 개인 COVID-19 예방을 위한 세부수칙 배포 및 적용
- 비상상황(임직원/가족 및 사내협력사 인원 중 COVID-19 의심/확진 상황 등) 발생 시, 매주 금요일 및 일요일에 DI 비상상황실 안내 문자 발송
- 비상상황실 정보공유망을 활용한 COVID-19 검사자 및 결과 실시간 유선 보고

이와 더불어 두산인프라코어는 전 임직원이 COVID-19에 대하여 동일한 가이드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임직원 행동/대응 가이드 배포 및 적용을 통해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사내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의 COVID-19 감염 현황까지 파악하여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 COVID-19 케이스별 행동 지침 및 회사 대응 절차 수립(발열 시, 본인 및 가족 의심상황 발생 시, 확진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 내용 기재)
- 전 임직원 및 사내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응 가이드 안내(방송, 메일, 포털 공지 등)
- 임직원 및 가족을 포함한 확장된 보호망 적용을 통한 적극적인 예방활동 진행: 임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동거인이 확진자/유증상자/코로나 검사자인 경우 임직원도 동일하게 자가격리 적용(근태 코드 지원)

마지막으로, 주재원 및 출장자 보호를 위하여 출장가이드를 배포하고, COVID-19 위험지역 출장/방문자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후 건강에 이상이 없을 시에만 출근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COVID-19 위험지역 출장금지/자제에 대한 가이드 배포 및 적용 (국내/해외 오염지역의 경우 출장금지 및 출장/방문자 대상 복귀 후 14일간 자가격리 적용)
- 해외 주재원 및 가족, 출장자 한국 복귀 지원
- 금지지역 외 출장에 대해서도 자제/연기 권고



사업장 관리

두산인프라코어는 사업장 내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 방문인원(임직원 및 외부인원 포함) 전수 발열체크 및 37.5도 이상 발열자 출입불가 조치를 취했으며, 이를 위해 비접촉식 체온계 약 80개를 배포하여 각 팀/직별 체온관리를 진행했습니다. 발열이 있는 직원의 경우 출근자제 안내를 했으며 그 외에도 아픈 증상이 있다면 쉬도록 안내했습니다.

사업장 내 사무실, 현장, 엘리베이터 등에 손세정제 약 600개를 비치하였으며, 정기방역(분무 소독) 실시 및 비상상황 발생 시 특별방역을 즉시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 2회 이상 위생 소독(손잡이 살균 등)을 실시하고 손 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홍보 포스터 및 배너 게시, 사내방송 송출을 진행했습니다.

COVID-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위하여 사내/외 단체활동 금지(행사, 워크샵 등) 및 사내동호회 모임을 잠정 중단하고 다중이용시설(후생관, 휘트니스 등)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통근버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일일 소독 실시, 사내식당 2부제(밀집도 분산) 및 혼밥 테이블(가림막, 비말 전파방지)를 운영했습니다.

재택근무/Remote work 실시

두산인프라코어는 심각단계에서 임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재택근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한편, 안정적인 재택/Remote work가 진행될 수 있도록 IT 인프라를 지원했습니다. 재택근무 시행을 위하여 직원 대상 COVID-19 대응 및 근무 가이드를 배포 및 적용했으며, 그룹과 회사의 가이드에 따라 2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서울 사무소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원활한 재택근무를 위해 Public Cloud 상의 업무 플랫폼인 Office365(Teams, OneDrive)와 Skype 등의 활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원들은 Teams 및 Skype 등을 활용하여 사내/외(고객, 협력사, 외부 counterpart)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온라인 회의 정착 및 협업을 통한

효율적 업무 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택근무에 따른 정보보안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Office365 보안 서비스를 적용하여 사내자료의 외부 유출을 관리함으로써 재택근무/Remote work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안 이슈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임직원 대상 지원 사항

두산인프라코어는 임직원 및 동거인(가족)이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근태지원을 하였으며 임직원의 동거인(가족)이 정부로부터 자가격리를 명령받는 경우(가족이 해외 입국자이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등), 동일 기간 동안 임직원도 자택대기(근태지원)를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두산인프라코어 전 임직원(인천/군산/안산/보령 및 지역서비스 포함)에게 KF94 마스크를 인당 15개 지급했습니다.

협력사 대상 지원 사항

두산인프라코어는 사내 협력사 임직원에게 KF94 마스크를 인당 15개 지급하였으며 대면업무 및 사람 간 접촉이 많은 사내 협력업체(경비대, 위생미화 등)를 대상으로 총 2,000개의 마스크(KF94, 덴탈)를 지급했습니다. 이 외에도 손소독제 지급 및 비접촉식 체온계 대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

UNGC 가입
2019. 4. 8



기본개요

부산소재 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원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설립목적과 부산경제의 지속가능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베스트 파트너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은 2000년 11월 17일에 공식적으로 설립된 부산시 공공기관입니다. 최근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을 통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사회가치를 실현하며 부산 시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현재 박기식 원장을 중심으로 1실 2본부 6센터의 조직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경제진흥원은 130명의 인력으로 부산시 전 지역에 22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

- 창업 및 취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지역기업 해외통상 및 시장 개척 지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지원(자금, 마케팅, 컨설팅 등)
- 신발, 스마트헬스케어, 지식서비스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
- 산업단지 관리 운영
- 경제동향 및 현안분석, 각종 경제현안 대책 수립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대책 마련

부산경제진흥원은 코로나19 피해상황 파악과 그에 따른 지원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피해지원센터 6개소를 각 사업장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들을 통해서 기업들의 피해 현황과 고용현황을 파악하여 단기적인 지원과 향후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부 및 예방물품 제공

- 부산경제진흥원의 임직원들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기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그렇게 모은 5,855천원의 소중한 성금을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였습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이 관리하는 산업단지 내 4개 지소와 동·서부산권 대표조합 및 협의회 등에 살균소독제 70통 및 대형분무기 11개를 비치하였으며, 통근버스에도 손소독제와 1일 1회 방역을 실시하는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 방역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의 상인회에 손소독제 110개, 고품질마스크 1,600개, 위생장갑 500세트를 제공하여 코로나19 감염 및 확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 부산경제진흥원은 코로나19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과 임대료 절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직접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자금 500억을 투입하여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당 1백만원의 격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컨설팅의 확대와 해당 건물주에게 건물에 대한 재산세 50%를 지원하여 많은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들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현장대응

관련 공공일자리 분야에 청년 250명을 채용시키는 일자리 지원 등을 함으로써, 지원사업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취약계층에도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 대응지침 마련 및 실천

- 부산경제진흥원은 코로나19 전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하여 정부 및 부산시 코로나19 관련 매뉴얼과 행동수칙을 전 직원과 공유하고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연락 및 일일 보고체계와 정부 및 부산시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 협력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자체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대면회의와 보고 및 출장의 원칙적 금지와 불요불급한 외출 외에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였고, 재택근무 및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는 등 업무에 있어서도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 및 예방활동 강화

- 부산경제진흥원은 전 직원에 대한 마스크를 배포와 전 사업장에 손소독제 비치 및 주기적인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나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예방활동에 앞장서며, 안전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부산경제진흥원은 업무시스템을 코로나19 예방과 지원을 위한 위기 대응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들과의 대면을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화상과 온라인을 활용한 방법을 업무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4월 화상회의실을 구축하여 각종 회의를 화상회의를 통한 비대면 회의로 변경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모범사례로 화상회의를 통해 미국 현지기업과 합의각서(MOA)를 체결하였으며, 온라인 심사 및 면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도 화상시스템을 적용하였는데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과 화상을 통한 상담회 개최와, 유튜브 방송을 이용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비대면 시스템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한 선제적 대응

- 부산경제진흥원은 보다 능동적인 내부변화의 방법인 조직개편을 통해서 코로나19 극복 및 포스트코로나를 위한 선택과 집중을 실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발굴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력채용 및 재배치를 실시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조직 內 TF를 구성하여 코로나19 극복 및 포스트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피해 접수센터를 통해 수집한 피해상황을 토대로 수출입기업 분석을 실시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시비의 추가 예산확보를 통해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접촉이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 예방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통시장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수칙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확대 시행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

UNGC 가입
2017. 7. 23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전국 최초로 여성과 청소년이 결합한 통합재단으로서, '청소년의 꿈과 여성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자 출범하였습니다(2015.11.5. 설립). 우리 재단은 부천 여성·청소년들의 필요에 맞는 의제를 찾고, 지역의 여러 자원을 발굴하여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정책 실행 기관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전문기관·시민들과 보폭을 맞추는 동반자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며 여성과 남성, 성인과 청소년 세대, 민간과 공공영역의 소통·연결·변화로 여성과 청소년이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 지역정책개발 및 연대협력
- 여성 능력개발
- 여성·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 청소년 문화예술 특화
- 청소년 에코문화 확산
- 청소년 창의진로활동
- 청소년 상담 및 사회
- 안전망 구축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지역 사회와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역안전 활동

감염예방물품(체온계, 손소독제 등)을 시민 이용공간내 비치 및 안전을 위한 시설 소독, 감염예방방법 안내문 게시, 관련 정보 홍보 등 지역 내 안전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망꽃이 피었습니다] 캠페인 참여

코로나19로 침체된 화훼 소비촉진을 위한 플라워 버킷 챌린지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면 마스크 제작] 지역 내 기부(부천시여성회관)

재단 직원들과 부천시여성회관의 바느질 동아리 '웃방', '반진고리' 회원들이 함께 면마스크 약 1,600개를 만들어 지역 내 청소노동자, 교통봉사대, 가사관리사분들께 전달했습니다.

[마을돌봄 럭키박스] 학교밖청소년 지원(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마스크, 손소독물티슈 등 감염예방물품과 간식, '마음돌봄지침서'를 학교 밖 청소년 약 240명 가정으로 전달하고, 검정고시를 앞둔 청소년 대상으로 인터넷 수강권, 학습교재를 전달했습니다.

[마을상생 프로젝트] 취약계층청소년 지원(부천여성청소년센터)

인근 시장의 반찬, 물품을 구입하여 '마을행복 안전키트(Kit)'를 제작하여 취약계층 청소년과 독거 어르신 가정으로 전달했습니다

비대면 상담 서비스, 문화교육 등 온라인 강의 운영(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심리상담을 요청하는 개인, 가족, 부부 대상 갈등에 대한 상담을 전화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임시휴관중
(~발드공시까지 계속됩니다)

BUT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중!!

부천시청소년수련관
다양한 활동, 공연영상이 업로드 중 ~~~~
와!락(樂)TV
외곽의 다양한 소식과 선물을 유튜브 구독으로 받아보라!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온라인 개학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비대면 상담 서비스 실시
전화상담, 온라인(화상)상담, 자원상담
대면 서비스(음향실리검사, 집단상담 등) 중단 문의전화 ☎032-325-3002

부천시청소년수련관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에 이렇게 대처합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은 대면 진행 ▶ 투쟁 가맹점 설치 완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마음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캠페인에서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진행 중이네요!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손이 닿는 구석구석을 소독하고 있어요!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방구석에서 우마를 만나요! 참가자랑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분만의 장기를 뽐내고 싶다면 참여해주세요!

비대면 청소년 상담서비스 운영
심리상담을 요청하는 개인, 가족, 부부 대상 갈등에 대한 상담을 전화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담 진행중~

다양한 활동으로 청소년과 소통 활발!
방구석 온라인 상영회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청소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 보여...)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코로나19 감염 차단과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부천여성청소년재단 특별 복무지침」을 마련하고 대응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 기관(부서)별 대응체계 구축

팬데믹 현상이 지속되는 동안 각 기관(부서)별 코로나19 대응 조직팀을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용 의무화

직원들의 감염 차단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출근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단위로 조편성 후 직원들의 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점심시간도 시차 운용을 의무화하여 시간대별로 균등하게 나눠 식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등 고위험군 직원 재택근무

임산부, 기저질환, 만9세이하 자녀 돌봄이 필요한 직원들은 재택근무 대상으로 우선 고려하여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시 '재택근무 신청서',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매일 근무 종료시간에 맞춰 재택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시설장 메일로 송부 후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대면회의·보고 및 출장 원칙적 금지

내·외부 회의 및 보고는 영상 또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마주보고 회의, 보고 시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합니다. 또한 국내·외 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증상자 및 여행력 있는 직원 출근 금지

출퇴근시 비접촉식 체온계 등을 활용하여 자체 발열(37.5°C 이상 여부) 모니터링 실시(1일 2회 이상) 및 기록합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발열체크를 통하여 근무 중에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지역, 국가 등을 방문(경유포함)한 직원은 복귀일을 기준으로 14일간 반드시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재택근무 또는 공가)하고, 자가격리 기간동안 타인의 접촉과 거주지 밖 외출을 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을 준용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근무 환경 관리

강당, 회의실, 강의실, 보건실 등 다기능 활용 공간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을 일시 폐쇄하고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희공간 소독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외부 방문자 관리

업무협의를 전화·이메일·메모보고·SNS 등을 활용하여 대면협의를 최소화하고 외부인 면담은 사무공간 외 지정장소(손소독제 필수 비치)에서 실시합니다. 또한 외부방문자는 비상연락처를 기재하고, 비접촉식 체온계 등을 활용하여 자체 발열(37.5°C 이상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UNGC 가입
2020. 2. 14.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989년 서울시민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서울시 전체 면적의 3.3%가 넘는 43개 지구 약 20.1km²의 택지를 개발하고 30만 호의 공공주택을 건설 및 관리하며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SH공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거복지를 넘어 청년주거문제, 미세먼지 등 현재 서울이 직면한 다양한 공간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혁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택인 '청신호'와 공공 공간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공간복지' 사업, 도심지 유휴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콤팩트시티', 그리고 혁신경영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SH공사는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포용, 돌봄, 안전, 참여, 공정, 공생'을 6대 핵심가치로 선포하고 사회적 가치 내재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5대공사 최초로 독립적인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인권 존중의 기업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H공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사회가 배운 혁신과 연대, 상생의 가치를 통해 더불어 잘사는 서울을 위한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며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임대주택 입주인 건강 보호

SH공사는 22만 세대에 이르는 공사 임대주택 입주인의 건강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1일 2회 이상의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민원대, 출입문, 공용손잡이, 승강기 등에 대한 주기적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지 내 모임을 줄이기 위해 경로당, 어린이집,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였고,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지역센터는 재계약 업무 등 주민 직접 접촉 업무를 잠정 보류하고, 단지 내 주민 참여 행사 또한 잠정 연기 조치하였습니다.

주거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임대주택 입주인 중 주거급여(생계·의료급여 포함) SH공사 직접수령자 2만 9천여 세대에 온누리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외부활동을 줄이면서 소상공인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공사는 지역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공사소유 상가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의 50%를 감면하였습니다. 사옥지하 입점상가, 임대아파트 입점상가, 그리고 가든파이프 입점 상가 총 993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으며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총 6개월간 월 임대료의 50%를 감면 받았습니다(지원규모: 약 10.5억원).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공공부분 소비 및 투자 확대를 통해 내수경기 위축을 완화하고 민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사는 선지급, 선계약, 조기구매를 추진하여 총 130억원을 상반기로 당겨 집행할 예정입니다.



임대아파트 승강기 항균필름 부착

승강기를 통한 감염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될 즈음 공사는 입주인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전용 아파트 241개 단지 승강기 버튼에 항균필름을 부착하였습니다. 공사 인근 1개 단지에서는 임직원 약 40명이 직접 승강기에 항균필름을 부착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에는 사장, 노조위원장, 임원진들이 솔선수범하여 참여하여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공사의 의지를 입주민들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화훼산업 지원·의료진 응원 ‘함께 피어오름’

졸업식·입학식의 취소로 경제적인 손해를 입은 지역사회 화훼산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수고한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인 ‘함께 피어오름’을 기획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공사는 총 5천만원 상당의 꽃다발 1,600개 및 화분 3,240개를 소상공인들로부터 구입하여 코로나19전담병원인 서울특별시 서남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들 그리고 지역보건소 2곳의 의료진에게 전달한 한편, 공사 임대주택 입주민과 임직원들과도 나누었습니다. 전달된 꽃다발과 화분에는 ‘코로나19, 함께하면 반드시 이겨냅니다. 힘을 내세요.’라는 응원메시지를 담아 위기의 시대를 상생을 통해 극복하자는 공사의 마음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쪽방 거주민 물품지원 ‘힘이 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무료급식이 중단되고 사회적 보호망으로부터 벗어나 어려움을 겪는 영등포 쪽방 거주민들에게 개인방역 용품과 함께 식료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영등포 쪽방촌은 SH공사가 현재 국토교통부 및 LH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으로 향후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이곳 쪽방 거주민은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에 입주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공사는 거주민 전체인 총 510여명에게 마스크, 손소독제를 포함한 개인 방역용품과 함께 쌀, 즉석식품, 삼계탕, 참치, 죽 등을 포함한 식료품을 담은 ‘힘이 난다’ 상자를 전달하였습니다.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5월 12일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대책본부 설치 및 위기대응매뉴얼 수립

SH공사는 2월 초부터 사장을 대책본부장으로 둔 코로나19 대책본부를 재난안전상황실에 설치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책본부는 기획조정실장, 경영지원처장 등 관리자급 9인으로 이루어진 대책반과 본부·실 주무부장 8인 및 건설현장 직원 72명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상황반 그리고 주요관련부서 직원 15인으로 이루어진 대책본부 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책본부 설치를 통해 공사는 서울시 및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비정기적 대책회의를 통해 주요사항을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내 확진자 발생 등 비상상황시 신속한 대처와 공사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사옥폐쇄, 주요직원 복무계획 등이 포함된 대응매뉴얼을 수립하였습니다.

재택근무, 사옥방역 등 지역사회 감염예방 노력

지역사회감염 예방과 대중교통 혼잡도 완화를 위해 임직원의 근무시간을 10시~19시로 조정하고, 3월부터 공사 전체 임직원 및 파견·용역업체 직원들의 교대형 재택근무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구내식당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공간을 재편하고 식사시간을 분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2월부터 매주 전문 업체를 통해 사옥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사옥 내 주요위치에 손세정제를 다수 비치하였습니다. 또한 주출입구에 총 3대의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여 발열 체크존을 운영하고 민원 접점부서 등 고객접촉이 많은 부서에서는 마스크를 배부하여 착용하게 하고 창구 가림막을 설치하였습니다.

공사현장 대응

건설현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많아 대응 초기부터 현장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현장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근로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으며, 현장 내 방역용품들을 비치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중국어, 영어로 된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현장에 배치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설현장 내 전파 및 확산을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공 공사가 일시중지·연기될 경우에 계약상대방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계약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주택 공급일정 및 방법 조정

대규모 인원이 공사를 방문해야 하는 주택 공급·계약일정을 연기·조정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임대주택 7,596세대에 대한 공고·접수·계약 일정을 2~5월에서 5~7월로 연기하였고, 방문접수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방문청약에 대한 주말접수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에 동참하였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UNGC 가입
2014. 8. 8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통합 공사로 1997년 설립된 시설관리공단과 2013년 설립된 도시개발공사가 합병하여 2014년 1월 하나가 되었습니다. 공사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가치를 개발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성장 시키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을 위해 성남시 공공 시설물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민의 지방공기업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1등 공기업',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기업으로 공사는 2014년 8월 UNGC 회원가입을 승인 받아 매년 지속 가능보고서 제출, CEO 지지서약서 및 반부패 선언식 참석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SDC 지역상생발전

- #착한 임대료 운동
- #관내농가 및 사회적 약자 시설 돕기
- #공사 개발이익금 1,000억 성남시 배당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 SDC 지역상생발전을 추진으로 공사 시설물 이용 소상공인 중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료 및 관리비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체육시설 시간강사(안전요원 포함)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는 위축된 경기침체 활성화를 위하여 성남로컬푸드 관내농가 돕기 1사무실 1화분 캠페인을 통해 지역경제 소비 확대를 도모하였으며, 관외지역 및 의료종사자에게 집중되어 후원이 중단되어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 시설을 파악하여 전사적 성금 모금을 전개하여 경비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 생활시설에 성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한편, 공사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기초생계급여를 받는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공사 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 1,000억을 신속하게 시로 배당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5월 4일 성남시 '3만3천가구' 취약계층 대상 긴급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 완료에 일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사회적 책임 이행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코로나19 지속 예방 추진 및 지역상생발전에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구분	대상점포	주요내용	감면율	감면액(천원)
계				1,594,534
상가관리처	491점포	사용료 한시적 감면 (2020. 2월 ~ 7월 / 6개월)	60%	1,109,643
	503점포			223,380
노외주차처	7점포			48,184
탄천종합운동장	22점포			108,637
성남종합운동장	11점포			104,690

체육시설 시간강사(안전요원 포함) 휴업수당 지급

구분	지급 금액(단위 : 천원)			
	계	2월	3월	4월
계	385,915	25,107	164,220	196,588
탄천종합운동장	257,680	-	110,554(175명)	147,126(175명)
성남종합운동장	128,235	25,107(68명)	53,666(71명)	49,462(6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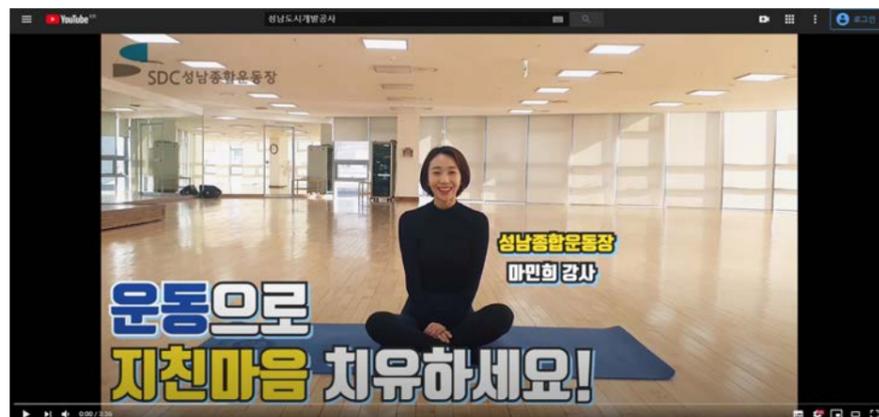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 #코로나19 전담TF 구성
- #모바일 스마트 혁신 회의
- #도서관 워킹스루 서비스
- #홈레이닝 영상 제작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 방역활동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코로나19 전담 방역봉사단을 구성하여 총 80여명의 직원이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공사 시설물 및 관내 유치원 98개소 방역활동에 참여하여 감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여 임직원 및 방문자들의 감염 상태를 지속 점검하였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일환으로 매주 개최하는 회의를 모바일 스마트 혁신 회의로 추진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였으며, 인터넷 사전예약을 통해 책을 빌리는 도서관 워킹스루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감염자 발생시를 대비하여 부서별 감염 발생 대책수립 및 업무공백 최소화 관리를 위한 부서별 유연근무제 시행, 중식시간 교대제 도입 등 전사적 노력을 통하여 공사 임직원 및 시설물 관련 관계자 비감염성 제로 목표로 지속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는 코로나19 외부활동 제약에 따라 지친 시민들을 위하여 공사 홍보 동영상 플랫폼을 통하여 실내에서 하기 쉬운 홈레이닝 영상을 자체 제작 및 시민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홈레이닝 영상시리즈(25편/2020년 5월 기준) 제공을 통하여 자가격리 등 생활 속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으며, 다가가 향후, 잠재고객 및 신규고객 유치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슬로워크

UNGC 가입
2015. 12. 21



슬로워크는 디자인과 테크놀로지의 시너지를 통해 조직과 사회의 변화에 기여하는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소셜벤처와 스타트업, 공공기관, 영리기업의 사회공헌 파트의 초기 셋업이나 액셀러레이팅에 필요한 디자인과 기술을 제공합니다. 전문적이고 깔끔한 협업을 통해 웹사이트, 웹 아카이브, UI/UX, 데이터 시각화, 브랜드 전략 및 디자인, 캠페인 전략 및 디자인, 인쇄물 디자인, 교육 및 컨설팅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우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의 이슈, 펀딩, 채용 등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는 뉴스레터인 '오렌지레터'를 발행하며 다양한 조직을 연결하는 플랫폼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업무 가이드 및 화상회의 안내

슬로워크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적으로 비대면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업무 가이드와 원격근무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및 디자인 프로젝트 수행으로 다년간 쌓아온 사례와 노하우를 블로그 글로 자세히 풀어냈습니다.

2월 중 발 빠르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화상회의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이메일마케팅 서비스 스티비를 활용해, 고객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해당 안내를 자동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또 슬로워크 홈페이지와 SNS에도 공지했습니다. 프로젝트 업무의 특성상 외부 미팅이 잦아서 더욱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원격근무 가이드 배포

슬로워크의 얼라이언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함께 원격근무 가이드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원칙과 태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업무환경 조성 등 꼭 필요한 정보를 가이드에 실었습니다. 나아가 협업 툴의 적절한 사용과 커뮤니케이션 원칙을 기반으로 고효율로 업무하는 방법을 블로그 글로 발행했습니다. 이후 가이드 배포 소식을 보도자료로도 제작해 긍정적인 임팩트를 확산했습니다. 디지털 및 디자인 프로젝트 노하우 공유의 경우,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블로그 글을 발행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의 변화를 업종별로 정리했고 비대면 캠페인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비즈니스 트렌드도 반영한 대응이었습니다.





슬로워크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표와 운영팀이 주도해 보건당국의 발표를 철저히 따르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원격근무와 화상회의를 장려했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보건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1월 말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할 때 슬로워크는 중국 여행에 다녀온 구성원, 호흡기 증상이 있는 구성원은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도록 공지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구성원도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을 따르도록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화상회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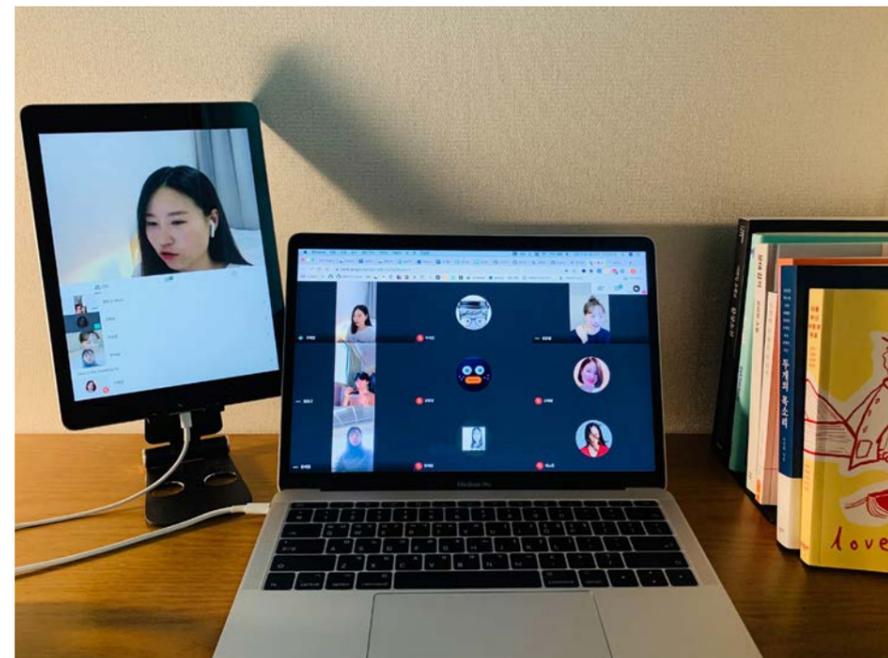
슬로워크는 2월부터 화상회의 앱 '구글 행아웃 미트(Google Hangout Meet)'를 활용해 회사 내외부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타운홀미팅'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타운홀미팅은 전 구성원이 참가해 회사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이자 구성원 간 소통의 장입니다. 슬로워크는 이를 미루지 않고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한 휴가사용 독려 및 방역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는 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리더와 논의하고, 리더들은 대상자가 충분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슬로워크는 휴가 일수에 제한이 없는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녀 돌봄 휴가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도 철저히 방역했습니다. 창문이 없는 회의실을 폐쇄했고 회식을 금지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시행되던 재택근무는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 구성원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사무실을 이용할 경우 사업부 리더에게 사유와 시간을 보고했습니다. 사업부별로 출근 가능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재택근무 중 구성원간 소통과 교류 장려

재택근무 중에도 구성원 사이의 소통과 교류를 장려하기 위해 구글 행아웃 미트를 활용해 사내 세미나와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랜선 슬로워크 세미나'를 통해 업무 노하우를 공유했고 '랜선 스트레칭', '슬로워커가 보이는 라디오'로 매일 또는 매주 서로를 만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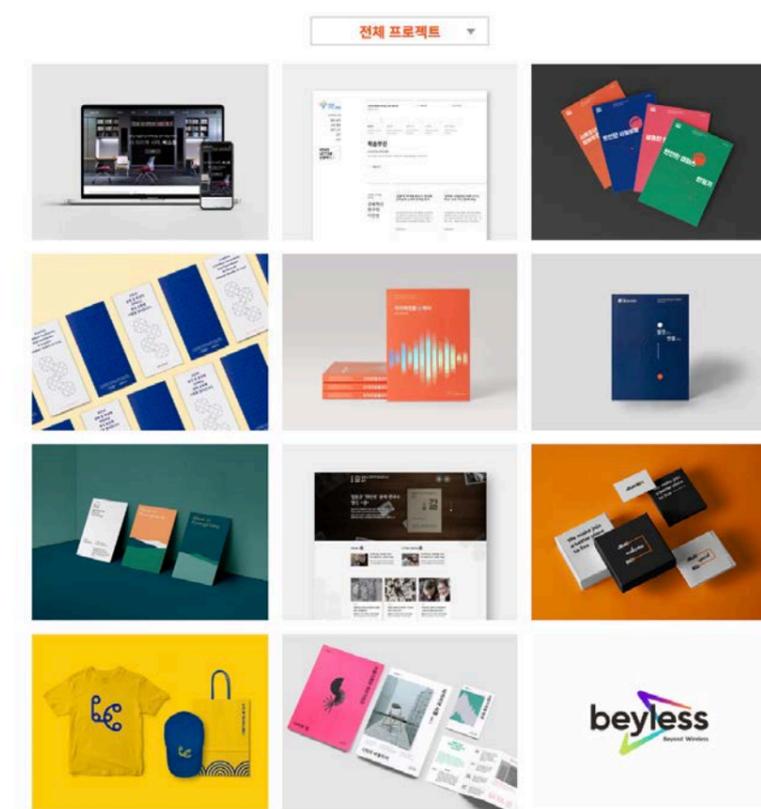


슬로워크가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전 구성원 재택근무' 기간이 끝난 이후인 5월 6일부터는 자율 재택근무로 전환해 사무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회의 시작 전 충분히 환기하고 1시간을 넘는 회의의 경우 1시간마다 휴식하며 환기해야 합니다. 회의 참석자 사이의 간격은 1m 이상을 유지합니다.

<슬로워크 생활방역 가이드>도 제작, 배포했습니다. 방역 관리자를 따로 두어 사무실에 손 소독제를 상시 비치 및 관리하고 사무실 곳곳에 방역 지침(안내 포스터)을 게시합니다. 또 매일 2회 이상 환기하고 매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슬로워크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원격근무와 자율 휴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잘 정리해 외부에 공유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즈니스 위축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으나 평소 준비한 덕분에 슬로워크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코로나19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이 외부환경 리스크를 완전히 제어할 수는 없으나 내부환경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슬로워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구성원의 보건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도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오프라인 활동을 계획하며 구성원들이 건강한 회사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모레퍼시픽

UNGC 가입
2007. 11. 29

AMORE PACIFIC

“저는 우리가 지금의 이 상황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과거 우리는 여러 다양한 위기를 마주했지만, 그때마다 다 함께 협업하며 극복해온 저력의 DNA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힘을 모으고 있는 치료제와 백신 연구는 곧 결실을 맺을 것이고, 코로나19도 결국엔 극복될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긍정’으로, 그것이 우리 앞에 다가올 ‘정해진 미래’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항상 더 강해졌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결단코 이겨낼 것입니다.”

-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이사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생태계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필두로 책임있는 글로벌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며, 급변하는 경영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굳건한 위기 대응력을 갖춘 글로벌 뷰티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서경배 회장은 “우리 기업 생태계 안에서 함께 호흡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은 인간 존중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으며, 고객·임직원·협력사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다.”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이러한 아모레퍼시픽그룹의 기업 경영철학은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기업 비상 상황실을 선제적으로 운영하며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 및 안전한 일터 관리를 적극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파트너사 및 협력사 지원

- 가맹점 등 파트너사 80여억원 직접 지원, 생산 협력사 2천억원 대금 조기 지급/선결제
- 아리따움과 이니스프리, 에뛰드 등 가맹점 대상 32억 원 규모의 제품 특별 환입
- 방문판매 카운셀러 소득 보전 및 영업활동 지원 15억원
카운셀러 면역력 강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15억원 지원
- 거래처 판촉물 지원, 수금제도 변경 등 다양한 형태로 추가 20억원 지원
- 가맹점 등 협력사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개인 위생용품을 무상 지원

의료진의 피부 진정 및 생활용품 지원

아모레퍼시픽은 코로나19 극복과 피해 복구를 위해 힘쓰는 대구지역 의료진이 오랜 마스크 착용으로 피부 트러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부 진정과 건강을 돕기 위한 화장품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대구지역 코로나19 대응전담병원 다섯 곳에 근무하는 1,100여 명의 의료진에게 전달되었으며, 대구 지역 의료진의 노고와 희생에 대한 감사와 응원 메시지를 함께 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긴급 지원이 대구 경북 지역 피해 복구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구경북지역 의료진에게 총 5억 원 상당의 현금과 의료진의 면역력 향상을 위한 건강 제품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 해외 법인에서도 현지 의료진의 피부 손상에 도움이 되는 제품 및 샴푸와 같은 생활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임직원들이 직접 사무실에서 care pack을 포장하여, 자원봉사단체(Everyday heroes SG)를 통해 병원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중국, 대만, 미국법인 또한 코로나19 피해복구와 의료 지원을 위한 기부금 외에 화장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하였습니다.

중국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지 3억 5천만 원 성금 전달

아모레퍼시픽 중국법인은 후베이성 자선총회에 200만RMB(한화 약 3억 5천 만원)의 성금을 전달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의료 시설 및 방호 물품을 지원



아산·진천 아모레 카운셀러, 우한 교민 대상 물품 기증

충남 아산시와 충북 진천군에서 활동하는 아모레 카운셀러들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해당 지역에 격리된 중국 우한 교민과 거주자를 돕기 위해 우한 교민이 머무는 임시 생활 시설에 방문해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물품을 기증하고 체류자를 격려
* 면역력 강화에 좋은 바이탈뷰티 명작수, 깨끗한 세정을 돕는 비누(3,240개) 등 물품 지원



서경배 님, 플라워 버킷 챌린지 캠페인 동참, 화훼농가 및 희망가게 매출 지원

인천과 대전에서 운영중인 세 곳의 희망가게 꽃집에서 꽃바구니를 구입해, 전국 220여개 희망가게 창업주들에게 희망의 마음을 전달



한부모여성 가장 창업점포 ‘희망가게’ 지원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아름다운재단이 함께 진행하는 한부모여성가장 대상 창업지원사업인 ‘희망가게’ 전국 220여 매장에 손 세정제를 후원

사전 모니터링과 누구보다 발 빨랐던 대응

2020년 1월 3일 중국 우한에서 원인 미상의 전염병이 발생했다는 첫 언론 보도 시점부터 리스크관리사무국과 안전환경경영팀은 모니터링에 착수하였고 신종 바이러스일 것이라는 추측 보도 시점인 6일에 경영진 보고와 함께 중국의 상황 변화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코로나19에 대한 임직원에게 대한 건강 안전 수칙, 중화권 출장 자제 요청을 게시하고, 중국에서 입국한 국내의 코로나 첫 발병자가 발생하자마자 즉시 코로나19 비상 상황실(Coronavirus Response Taskforce Team)을 조직하여 코로나19에 확산에 대비한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상황실에서는 코로나19 진행 경과 모니터링, 구성원 안전지침 수립 공지, 위생용품 수급 배포, 각 지역별 국내 조직 및 해외법인과의 안전 대책 지원 및 소통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주 단위 가이드 공지를 기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P. C. D. 감소 원칙에 따른 단계별 대응 진행

아모레퍼시픽 내에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막고 최대한 발병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① 자사 직원 및 자사의 이해관계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Probability)을 최대한 낮추고, ② 감염 경로인 사람들간의 접촉(Contact)을 최소화하며, ③ 감염자가 다시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기간(Duration)을 최소화하는 대처가 필요하다는 P.C.D. 대원칙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실에서는 정부의 지침을 참고로 심각성 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 대응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Probability] - 위생 용품 지급, 열화상카메라 운영

아모레퍼시픽은 그룹사 내 모든 구성원들에게 감염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강력한 내부 안전지침 진행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보다 2주 빠르게 진행하였고 전 임직원은 물론이고 아모레퍼시픽과 거래하고 있는 판매대리점, 방판 카운셀러, 협력사 직원들까지 그룹 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위생 용품을 지원 공급하였습니다.

- 1월 30일부터 마스크를 전직원에게 배포, 상시 착용 공지, 손세정제와 손소독제 비치
- 2월 6일 열화상카메라를 전 사업장 출입 통로에 배치, 회사 내부나 외부로부터의 감염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
- 마스크 공급 차질이 예상되어 선제적으로 다화용 마스크 4.6만개를 배포, 구성원이 안심하고 근무 할 수 있도록 지원

[Contact] - 외부와의 접촉 제한 / 출장 / 사옥 안전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시작된 3월 23일보다 두달 전인 1월 23일부터 중화권 방문자의 회사 출근을 제한하는 조치와 함께 중화권으로의 출장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다수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나 행사 등을 자제 요청하는 등 각 상황에 따른 안전지침 및 행동 가이드를 공지하여 직원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상황에 맞게 매주마다 바꿔 나갔습니다. 미팅, 정기 조회, 집단 강의를 내부 화상시스템을 활용하여 전환하고 사업장 간의 이동 금지, 외근, 출장 등을 제한하여 임직원이 외부와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하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본사 사옥 방역을 시작으로 국내 지역 사업장 및 주요 매장 또한 2월내 방역 진행하였으며 매장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 판매현장에서 준수하여야 할 코로나 대응 예방수칙 (영업현장 가이드, 특히 테스터 사용 금지와 관련)을 배포하였습니다.

[Duration] - 자체 격리 가이드

아모레퍼시픽은 고열, 호흡기 이상 증상 등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본사 내 위치한 의료기관인 아모레퍼시픽 부속의원 통해 조치하고 증상자의 출근을 제한, 재택 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염에 취약한 임산부, 확진자와의 직간접 접촉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재택근무(출근제한)을 부여함으로써 내부 임직원과의 접촉 시간을 최소화 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확진자 발생의 경우를 대비하여 확진자를 빨리 찾아 전파될 수 있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열 고열이 있는 직원의 출입제한 조치, 열화상카메라 운영, 출입 태그 기반으로 임직원의 사옥내 동선을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등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옥내 동선 파악 데이터를 일일 단위로 관리하였습니다.

글로벌 코로나 확산 사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모레퍼시픽은 중장기적인 대응방향을 수립하여 적용 할 예정입니다. 사태가 종결 될 때까지 코로나 비상상황 조직을 중심으로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부 가이드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 방역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지친 임직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멘탈케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파트너 협력사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복구에도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사 가치사슬 안에서 사회적 및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공유가치창출 일환으로 해피바스 새니타이저를 개발, 카운셀러 및 아리따움 거래처에 약 29,000개 기부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위생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2003년부터 지역사회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을 대상으로 화장품, 생활용품을 지원해 왔습니다. 연간 전국 3천여 개 기관 및 시설에 소비자가 기준 총 50억 규모로 진행하였는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위생과 청결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생활용품 사용 여력이 부족한 사회복지 기관과 시설 대상으로 기존 대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20년 상반기에만 3천여 개 시설을 대상으로 50억 규모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한킴벌리

UNGC 가입
2007. 3. 8



1970년에 창립한 유한킴벌리는 올해로 창립50주년을 맞이하는 생활혁신기업입니다. '더 나은 생활을 향한 믿음'의 비전 아래, 제품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생활문화를 개선하고, 또한, 미세먼지, 바이러스, 케미포비아 등으로부터 제품안전을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84년에 시작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숲환경보호 공익캠페인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여성역량강화활동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기부사업 등 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하여 기업시민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유엔글로벌컴팩트에 가입한 이래 4대 원칙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기부 긴급 액션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되면서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권 확보가 중요해졌습니다. 2월초, 유한킴벌리는 기부 물량 15만장을 확보해 아산, 진천 지역에서 격리 생활을 한 우한 교민들과 전국 취약계층에게 전달하였습니다. 3월에는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 대신 대구지역의 의료진과 취약계층에 마스크 100만장을 기부했습니다.

월정급여 1% 나눔과 노동조합 특별 구호 기금 전달

유한킴벌리의 직원들은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지역 취약계층, 의료진 등을 돕기 위해 3월 월정급여의 1%를 기부하는 나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사원의 90%가 참여하여 약 5,98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동조합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의료시설과 공공기관에 마스크, 화장지, 생리대, 손소독제 등 구호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유한킴벌리희망뱅크(기부플랫폼)을 통하여 마스크에 이어 기저귀, 생리대 등 지역사회 회복을 위하여 제품기부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정부 공적판매 확대 신속 대응

유한킴벌리는 정부의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적극 대응해 KF94, KF80마스크와 덴탈마스크 일일생산량의 50%-80%를 공적판매를 통해 신속하게 출고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공급을 위한 판매처로 지정되어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복과 보호복 수요 긴급상황에 따라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호복의 경우, 다수의 국내 봉제공장과 계약을 맺어 3월부터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새로운 추가 생산 판로를 발굴하는 긴급결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관리팀 구성

유한킴벌리는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즉시 '안전/위생 위기관리팀'을 조직하였고, 2월 전국적으로 감염 위험이 심각수준으로 확산됨에 따라 전사 '코로나19 위기관리팀'을 구성하여, 대응 프로세스 구축 및 행동가이드라인 수립 및 유연근무 시행, 대내외 대응활동 등을 총괄하였습니다.

예방·대응 가이드 운영 및 사내 정보 공유

코로나19 위기관리팀은 구성 직후 제일 먼저 '코로나19 대응 프로세스'를 수립했습니다. 인트라넷, 매주 발간하는 '위기관리 뉴스레터'를 통해 안전보건 수칙과 대응 가이드라인, 대응 현황 등을 직원들과 공유했습니다.

재택근무 및 원격회의

디지털라이제이션 기반의 스마트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재택근무와 원격회의를 시행해 집단감염을 사전에 예방했습니다. 2월 11일 감염에 특히 취약한 임산부 및 육아 중인 직원을 시작으로, 2월 24일 필수출근자와 전 부문으로 재택근무를 확대하였고, 3월 9일자 기준 본사 재택근무자 비율은 90%였으며, 4월말기준 평균 73%의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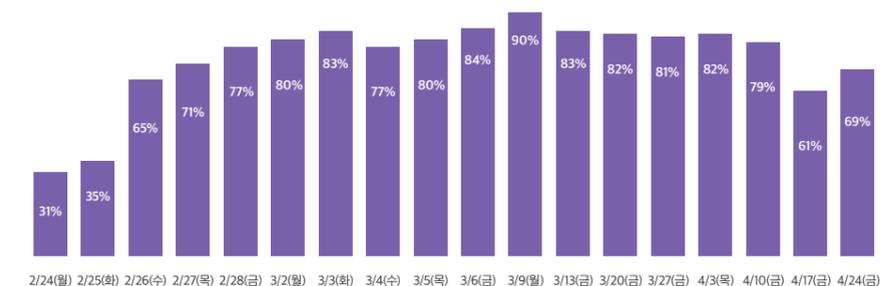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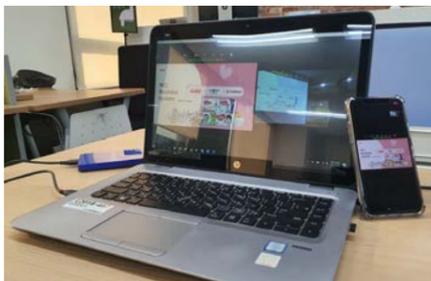
직원 대상 마스크 지급

유한킴벌리 직원(본사 및 국내 전사업장)에게 4차례에 걸쳐 마스크를 제공했습니다. 코로나19의 주요 감염 매개체인 비말을 차단해 직원들의 근무현장과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출입자 안전 관리 및 사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본사 및 사업장 출입시 체온측정,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출장을 제한하고, 외부 회의를 가급적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하여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식당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일렬 또는 지그재그 착석하도록 했으며, 실내 흡연공간, 헬스장 등 밀폐공간을 잠정 폐쇄했습니다. 더불어 주기적 방역을 실시해 감염 확산을 사전 예방했습니다. 또한 통합고객서비스센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재택근무 참여 비율(본사)



인천시설공단

UNGC 가입
2020. 2. 4



인천시설공단은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2년 3월 25일 설립된 지방공기업입니다. 현재 4본부 4실 10사업단 4관의 조직에 총 1,093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경영, 사회적 가치혁신, 인권경영, 가족친화 경영을 경영목표로 인천의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공구매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수상과 행정안전부 주관 참여협력 선도기관 장관 표창 수상, 한국의 혁신대상 사회혁신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선진 우수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나눔과 참여의 사회공헌활동 실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공단은 시민과 노사가 함께 면 마스크를 자체 제작하여 인천장애인체육회, 대구시설공단,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11개기관과 단체에 마스크 3,300장, 소독제 1,000개를 전달하는 등 나눔과 참여의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임직원 기부금 7,200천원을 전달하고, 임직원이 직접 생필품 키트를 제작하여 지역 쪽방촌, 노약계층,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원과 간부의 자율적 급여 반납을 통해 10,300천원을 취약계층에 기부하고, 임직원 성금 모금을 통해 10,000천원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혈액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헌혈캠페인에도 총 17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추진

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임직원 급여 일부(262백만원)를 지역전자화폐(인천e음카드)로 지급하였고, 전통시장 상인 지원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구입(17백만원) 하였습니다. 또한공단 관리시설에 입점해 있는 임차인의 부담 완화를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경(85개소 / 2,710백만원) 하였습니다.





전사적 대응과 감염예방을 위한 종합안전 관리대책 추진

공단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적극적인 상황 대응을 위해 재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CEO 주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실시하여 SNS를 활용한 주/야간 비상근무 체계 시스템 운영, 상황보고체계 유지를 위한 주말 비상근무 실시, 전 사업장 손소독제 비치 및 예방수칙 홍보 등 전사적인 대응과 안전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 이용시설 예방대책 추진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격상에 따라 공단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14개 시설을 임시휴관하고,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을 위해 자체방역(1일 2회), 전문방역(월 1회), 안내방송(수시) 등 시설별 방역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적극 동참

공기업으로서 모범적인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우선 CEO는 특별메시지를 전달하여 전 직원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회의는 비대면 영상회의로 실시하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직원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한편, 지속적인 안내문자 발송, 대규모 행사 및 출장 금지 등의 조치를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 실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지역 농산물(강화 쌀)을 구매하여 저소득 가정에 전달하는 지원활동과 지역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 사랑의 연탄 전달 및 김장봉사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UNGC 가입
2018. 10. 4



코오롱인더스트리는 1957년 국내 최초로 나일론 생산을 시작한 ㈜코오롱을 전신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화학섬유 산업의 선구자로서, '70년대 나일론과 폴리에스테르 섬유산업을 이끌었고, '80년대에는 합섬 기술을 기반으로 고분자 및 정밀화학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며, 글로벌 소재 메이커로 발돋움하였습니다. 현재는 산업자재, 화학소재, 필름/전자재료, 패션 등으로 사업분야를 넓히고,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활발히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넓고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혁신하고, 보다 큰 비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작은 도움을 보태고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마스크 핵심자재 무상공급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마스크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마스크의 핵심 자재인 MB(Melt Blown) 필터를 생산해 무상 공급하였습니다. 급증한 수요로 인해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자재 공급 부족으로 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의료용 MB필터 파일럿 설비를 마스크용 MB필터 제조용으로 전환하여 약 200만 장의 필터를 생산하였고, 해당 필터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마스크 제조업체에 무상으로 공급되었습니다.

'마음 드림팩' 제작 및 전달

마음을 더하고, 지혜를 곱하고, 어려움을 나누는 마음으로 코오롱그룹 사회봉사단은 임직원들의 기부금으로 위생용품과 심리지원 물품이 담긴 '마음 드림팩'을 제작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40개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헌혈자가 급감하여 수혈을 위한 혈액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일 때, 전사적으로 헌혈 캠페인을 한번 더 진행하였습니다. 또, 현재 방호복과 순환 펌프기, 마스크까지 착용하여 많은 땀을 흘릴 수 밖에 없는 의료진들을 위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기능성 티셔츠와 바지를 대구시에 기부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소상공인 지원

코오롱인더스트리 노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매년 창립기념일마다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던 약 10억 원 규모의 선물을 소상공인을 위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구미, 경산, 김천 등 대구/경북지역에 주요 사업장을 갖고 있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통해 지급된 상품권의 일부를 지역단체에 전달하였습니다.

해외 고객사에 마스크 전달

국내에 그 기세가 꺾였다고는 하지만, 아직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락물자가 된 마스크가 수출이 엄격히 제한된 상황에서도 관련 사업팀에서는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유럽의 고객사에게 마스크 전달방법을 찾았습니다.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유럽에서 감염예방 및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마스크를 받은 고객사들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진정어린 노력에 고마워하였습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이러한 활동들은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아 4월1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과 격려로 이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코로나19 극복의 모범 사례를 만든 기업이라고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칭찬하였습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러한 칭찬에 들뜨지 않고, 계속해서 철저한 예방과 확산 방지에 동참하여 앞으로도 더하고 곱하고 나누며 전 국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위한 비상대책 수립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초기부터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비상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면서도 확실한 대응을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비상대응 TF를 구성함으로써, 전사 대응활동 일원화 및 확산방지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전사 비상대응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이 비상대응 TF는 인사, 기획, 환경으로 구분되어 각각 인력운영 및 총무지원, 사업관리 및 대외홍보의 기획, 전사 보건관리 분야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조직은 본사는 물론 각 사업장 및 해외법인의 유관부서까지 긴밀하게 소통하여 전사적으로 방역 구멍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비상대응 TF는 여러 감염가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등급을 나누어 행동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행동 가이드라인은 전 임직원에 공유되어, 근무시간은 물론, 퇴근 후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임직원이 행동 요령을 따를 수 있게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수칙 및 자가격리자 생활 수칙 등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전 임직원에게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 임직원들 대상으로 출퇴근 시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매일 측정·관리하고 있으며, 마스크 지급 및 손소독제 비치 등을 통해 개인 위생 및 방역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근무환경 변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어 심각단계 국면에 들어설 때에는 코오롱인더스트리 근무환경도 재빨리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용하여 코로나19 감염 최소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차출퇴근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임직원이 혼잡한 출퇴근시간을 피해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가정과 일터의 위험 노출을 조금이라도 줄였고, 더 나아가서 재택근무 실시를 통해 감염의 사내발생 및 확산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초등생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직원과 재택근무를 실시해도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는 직원을 중심으로 그 비중을 점차 확대하여

시행하였으며, 부서별 50% 수준 이상이 되도록 교대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이미 구축된 화상회의 시스템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의나 미팅 등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야 하는 일에 대해서 출장 및 외근 등 이동을 제한하고, 원격업무 수행 수준을 높여 코로나19 감염예방을 하면서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사간 힘을 합치자는 의미로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최초로 무교섭으로 타결하였습니다.



다행히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크지 않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확진자(1명)가 발생하고, 접촉자를 확인하여 자가격리도 하였지만, 즉시 방역조치하고 조업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 현재까지는 무리없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하고, 고객사와 협력업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손실도 생길 수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경영체제를 더욱 더 공고히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포스코

UNGC 가입
2012. 5. 31



포스코는 1968년 4월 1일 산업화라는 국가적 사명을 안고 출범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일관제철소로 연간 4,100만 톤의 조강생산체제를 갖추었고 세계 53개국에서 생산과 판매 등 다양한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 개발로 인류 발전에 기여하며,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회사로 자리잡은 포스코, 앞으로도 포스코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이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신뢰와 존경 받는 영속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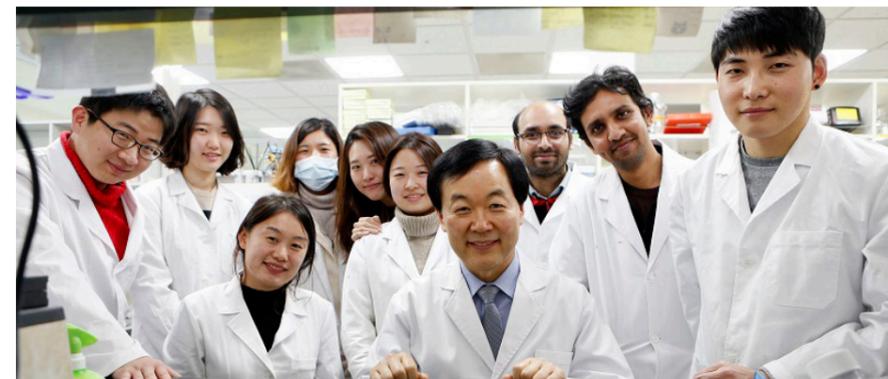
*기업시민 포스코 로고 설명 : 포스코와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아가는 의미를 담아, 기업시민 포스코가 추구하는 안정, 포용, 공존, 행복의 의미를 지붕 모양의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020년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적 혼란과 영향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국내/해외를 포함하는 그룹차원의 컨트론타워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TFT'를 1월 31일 구축하는 것으로 비상대응체제를 시작했습니다. 대응 정책에 따라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여 더욱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한편, 기업시민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위기 극복을 계기로 더 높은 기업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 지원금 출연 및 코로나 진단법 개발

코로나 확산 방지 지원금 출연 및 코로나 진단법 개발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등 5개 그룹사는 공동으로 50억원을 출연해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조기 극복을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단위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기업시민 포스코의 구성원답게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특별 지원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편, 포항공과대학교 연구팀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15분 내로 단축하는 진단법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연구팀은 향후 코로나19는 물론 사스, 메르스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 및 치료제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체제를 갖출 계획입니다.

미국 재향군인 병원에 화상면회시스템 기부

포스코아메리카는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Augusta) 소재 재향군인 치료 병원에 코로나19 여파로 면회가 어려운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기 위하여 화상면회시스템을 기부하였습니다. 해당 병원이 코로나19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면회를 금지함에 따라 고령의 환자들은 가족들의 배웅도 받지 못한 채 쓸쓸하게 임종을 맞아야 했습니다. 이에 포스코아메리카는 임직원의 급여 1%를 기부하여 마련한 직접화상면회시스템을 병원에 기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은 매일 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대구지역 의료진을 위한 응원키트 2천 개 전달

포스코는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 중 하나인 경상북도에 본사 및 다수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스코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 중인 의료진들을 위해 감사의 마음을 담은 특별한 응원 키트를 제작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본 응원 키트는 사회적기업이 자동차의 시트를 재활용해 국내 생산한 친환경 가죽 백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내수경제 활성화를 지원 하고자 포스코가 특별 제작한 것입니다. 포스코의 백팩 응원키트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종합비타민 등 건강식품과 마스크, 손세정제, 세면도구, 면도기, 여성용품 등 위생용품 이 담겨 있으며,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하여 제작했습니다. 본 키트는 대구의료원과 계명대 동산병원을 첫 시작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 희망 브릿지를 통해 순차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포스코는 전국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대구/경북지역 지자체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키트와 개인위생키트를 공급하고, 도서지역 학교, 노인정,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사회 사각지대의 방역 활동에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 의인 자녀 장학금 지급

포스코 청암재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전국적인 비상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 2명을 포스코히어로즈*로 선정하고 유가족에게 자녀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포스코히어로즈로 선정된 전주시청 총무과 소속 고(故) 신창섭 주무관과 성주군청 안전건설과 고(故) 피해호 계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일하다 과로로 사망하였습니다. 재단은 갑작스런 가장의 사망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사회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노고를 잊지않으려 합니다.

* 포스코히어로즈펠로십 : 국가와 사회정의를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자신을 희생한 의인이나 의인의 자녀가 안정적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사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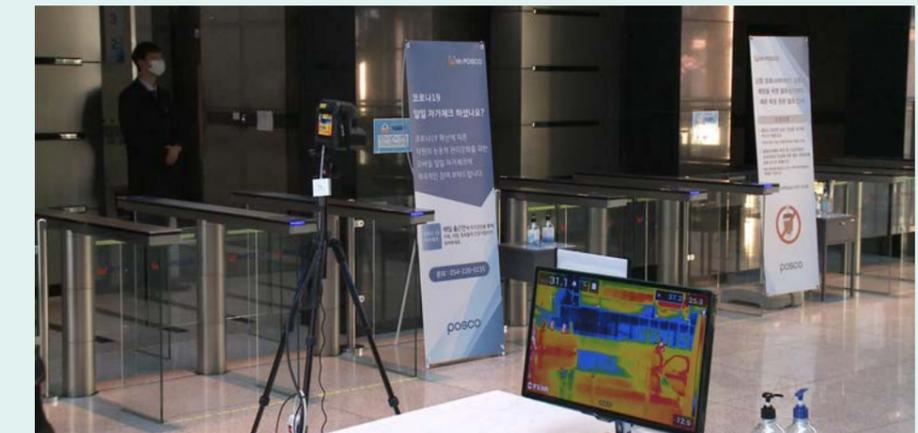
비즈니스 영향 최소화

포스코는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경영환경에서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고자 고강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원가절감을 최대한으로 하여 위축된 시장에서도 마진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지향형 기술혁신과 전사적 품질혁신, 미래 성장 신제품 개발에 매진하여 위기일수록 마켓 리더로서 그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위축된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나리오별 생산/판매 계획을 담은 비상대응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대외 여건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수익성 방어와 재무 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포스코그룹의 임원들은 코로나 정국이 가져 온 시장 불안에 대응하고 회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실천하였습니다. 이러한 임직원의 숭선수범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임직원 건강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 조치 실시

제철소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 및 대수리 현장 등 안전 사각지대를 특별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건강체크 및 현장 점검을 상시화하여 조업 현장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중국과 해외법인을 포함해 전 직원의 출장을 자제 시켰으며 해외에서 입국한 직원의 경우 자가 격리 후 출입하도록 조치하였고 서울주재 근무자의 재택근무를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은 출근 전 모바일로 코로나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모든 동선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여 하루에 최소 2회 이상 체온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포스코는 적시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여 임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사업장을 운영하였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UNGC 가입
2019. 11. 7

포스코인터내셔널은 1967년 창립 이래 대한민국 수출을 주도해 왔습니다. 2010년 포스코그룹의 일원이 되어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서 전세계 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철강, 식량, 에너지, 화학, 부품소재, 인프라 등 다양한 사업군에서 Value Chain을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발굴, 고객과 함께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핵심사업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철강, 식량, 에너지 등 전략사업 중심으로 성장 원동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강사업부문은 국내 중소고객사 중심의 철강 유통시장과 동남아, 중국, 미주, 유럽 등 전세계를 대상으로 포스코 제품을 비롯한 국내외 우수 철강사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철강 Total Solution Provider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외 생산, 합작 투자 등을 통해 특정 품목에 대한 사업의 Value Chain 확대 및 부가가치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자원 시장에 진출하여 쌀, 밀, 옥수수, 보리 등 주곡과 대두, 유지, 부원료를 중심으로 국내 수입과 중계무역을 통해 식량자원 확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해외 식량자원 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 파푸아 주에 법인을 설립하여, 연간 10만톤의 팜오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속 가능한 사회책임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팜사업 환경사회

정책(NDPE)을 선언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연 250만톤 처리 규모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터미널을 준공함으로써 곡물사업 Value Chain 강화는 물론, 식량안보를 위한 글로벌 곡물 조달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신성장 동력인 에너지사업에서는 미얀마가스전의 성공경험과 사업역량을 토대로 기보유 운영광구 및 신규광구의 탐사·개발·생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얀마가스층 추가 발견으로 탐사역량을 재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액화플랜트, LNG트레이딩, 벙커링, 수입터미널, 파이프라인, IPP사업 등을 망라하는 Gas Value Chain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시민’ 경영이념과 지속가능경영 활동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포스코그룹의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이념을 바탕으로 국내외 전 사업장에서 사회적 가치 및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고 이를 다시 기업의 성장과 연결시키는 선순환 상생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경제·환경·사회적책임 등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래인재육성, 보건의료 지원, 배려계층 보호를 위한 국내외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곳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장점인 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중소벤처기술력으로 개발된 진단 키트 긴급 지원

4월 18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의 보건체육부에 10,000회 검사할 수 있는 검사 시약 100키트를 전달했습니다. 진단 키트 구입에 따른 1억 7천만원 상당의 비용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웨가스전 컨소시엄 파트너사인 MOGE(미얀마 국영석유회사), ONGC(인도 국영석유회사), GAIL(인도 국영가스회사), 한국가스공사가 지원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전달한 진단 키트는 기술력있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으로, 해외판로 개척에도 지속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라 의미를 더했습니다. 미얀마의 코로나19 확진자는 85명이며 총 검사 수는 3,200건이기 때문에 (4월 17일 기준) 전달된 진단 키트가 검사시약 부족으로 초래할 수 있는 미검사 잠재확진자 수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중국-다시 한국으로 이어지는 나눔의 선순환

포스코인터내셔널은 4월 22일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새꿈학교에 재학중인 중도입국청소년*에게 마스크 500매와 선물용품을 전달했습니다. 마스크 500매는 지난 2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거래업체 5개사에 전달한 마스크 3,000매에 대한 답례물품으로, 3월에 전달받은 것입니다. 회사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한 부서에서 시작한 작은 온정이 해외 중국으로 건너갔다 다시 한국으로 오면서 그 따스함은 배가 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중도입국청소년: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한 이민자의 자녀로, 부모를 따라 한국에 와 거주하는 청소년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한 상생활동 확대

회사는 의료환경이 열악한 방글라데시의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방호복 키트 1,000세트(방호복, 마스크, 고글, 장갑 등)를 기증하였으며, 미얀마 짝푸-양곤 병원 및 MOGE(미얀마 국영석유회사)에 마스크 52,500매, 방호복 1,500벌, 체온계 등의 구호물품을 순차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길이 막혀 힘든 베트남 농가 지원을 위해 수박 등 과일 1천여 개를 구매하여 고객사 및 임직원에게



제공하였으며, 인도네시아·우크라이나 지역사회에 신속진단키트 및 의료물품을 5월 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글로벌 종합사업회사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지원에 있어서도 해외사업장과 고객사에 대한 지원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그룹사와 공동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각 2억원을 기부하였으며, 출연금은 의료구호물품 지원, 방역 및 예방활동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국내외 코로나19 이슈 대응에 기여하고, 위기를 상생으로 이겨내는데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국내 마스크 수출 제한, 해외 네트워크로 이탈리아 고객사 마스크 지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탈리아의 최대 거래처 중 하나인 마르체갈리아(Marcegaglia)를 비롯한 주요 철강 고객사에 마스크 2,000매를 3월 24일에 전달하였습니다. 국내 마스크 부족으로 마스크 수출이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 중국지역본부가 마스크 확보에 적극 나섰고, 현지의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처 발굴로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마스크는 ‘Augura che tutto possa andare bene!’(Hope everything will be fine!)라는 메시지와 함께 고객사에 전달 되었습니다.

언택트 사회공헌활동 통한 국내외 취약계층 아동 지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될 수 있는 국내외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임직원 950여명이 3월 한달 간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손수건을 제작하고 운동화를 색칠하는 등 ‘가족참여 재택 사회공헌’을 실천하였습니다. 손수건은 동방사회복지회를 통해 기관과 위탁가정 600여명의 입양대기 아동들에게 전달되었으며, 운동화는 350여명의 필리핀과 미얀마 아동들에게 보내졌습니다. 제작키트 구입비에 포함된 후원금은 입양대기 아동들의 기초양육물품, 생활용품과 개발도상국 아동들을 위한 보건위생 사업에 이용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동참하며 어려운 상황에 가족과 함께한 언택트 사회공헌활동은 국내외 소외계층 아동들과 마음의 거리가 어느때보다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어려움 속 중소기업 상생협력 확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중소기업 협업 전담 조직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도와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순순환형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바이오벤처인 바이오엠펙과 제품개발 및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인 바이오세움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미얀마에 지원하는 등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수구 지역아동센터에 코로나19 대비물품 기부

2월 5일, 연수구 지역아동센터 모든 아동들에게 코로나19 대비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장시간 함께 있는 아동들은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시급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원이 되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 배려계층 아동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입비로 600만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했으며, 이는 연수구 지역아동센터 13곳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파푸아뉴기니 보건부에 항체 신속진단키트 공급

포스코인터내셔널은 5월, 파푸아뉴기니에 항체 신속진단키트 5,000회분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현재 채취된 검사대상 샘플은 1,521건이나 진단은 559건만 진행되는 등 검사에 필요한 진단키트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4월 22일 기준). 파푸아뉴기니 전 지역에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샘플 채취 지연 및 판정까지 수일이 소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는 항체 신속진단키트를 공급함으로써 신속하게 바이러스를 진단하고, 환자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에 따른 바이러스 예방 및 임직원의 건강관리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내부적으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심리적 다가가기’ 실천

코로나19 사태로 다소 위축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하여 사내 웹진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음건강지침’, ‘강제 홈루덴스족을 위한 집에서 즐기는 활동’, ‘요즘엔 홈카페’, ‘방구석 1열에서 전 세계 공연을 무료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등 임직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특히 지친 마음을 격려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인의 자세!’ 이벤트를 진행해 거리두기 속에서도 각자 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위기극복 노하우를 사진과 함께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임직원에게 격려물품을 제공하고 해외 법인과 지사에도 구호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송도 본사에 근무 중인 구내식당, 보안, 미화 등 협력사 임직원 1,500여 명에게 위생용품 및 건강식품 등을 지급하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3월부터는 호텔, 상업시설 및 소상공인 입주사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임대료와 관리비 감면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입주사와 상생의 ‘기업시민’ 이념을 실천하며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직원 및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대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감염의 고위험군인 임산부를 상시 재택근무로 전면 전환하여 취약계층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앞장섰으며, 개학 연기로 육아 어려움을 겪는 직원의 자녀돌봄 재택근무 시행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전직원 대상으로 교대제 재택근무를 확대 실시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개했습니다. 현재는 정상근무로 전환되었으나, 임산부·자녀돌봄 재택근무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외복귀(유학 등) 가족발생 시 자가격리 절차 준수로 임직원의 안전을 지속 도모하고 있습니다.

출근 후에는 오전·오후 부서별로 자가 체온 측정을 하였으며 정기적으로 매일 야간(오후 9시~새벽 3시) 건물 전역 소독을 통해 철저한 방역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출입구마다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여 임직원 및 입주사 직원, 외부인의 발열 여부를 상시 체크하였습니다. 의심환자 발생 시 이동 동선 소독을 즉시 실시하며, 해당층 임직원은 자가격리 및 재택근무로 즉시 전환하고 그 진행상황을 임직원에게 문자로 신속히 안내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동향을 고려하여 국내출장 자제 및 해외출장 전면 중지 등 출장 가이드를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법인과 지사는 현지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주재원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국 및 귀국 희망자의 귀국비와 체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주재원을 포함한 현지 임직원 가족들의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 160,000매를 긴급히 확보해 전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재택근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영상회의, VPN(Virtual Private Network) 등 IT 시스템을 회사가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구축한 데 있었습니다. 다중 참석 회의를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로 대체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신속 법률대응 데스크’를 운영하여 코로나19 사태 관련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선제적 초동 대처를 지원하는 등 직원들을 위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UNGC 가입
2007. 8. 2



한국농어촌공사는 1908년 설립 이래 농정의 최일선에서 농어업인과 함께 해왔습니다. 주국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 수자원 확보와 관리, 농지은행 사업, 지역개발 및 도농교류를 통한 농어가 소득 및 경쟁력 강화,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 국민과 농어촌의 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을 다방면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꼭 필요한 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더불어 코로나19 등 국가적, 전세계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여 위난 극복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기업 외부적 차원에서 임직원 급여 반납, 성금 모금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민,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노동조합비로 지역농산물을 구입하는 등 노사가 합심하여 농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급여 반납 및 자발적 성금 모금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노사가 함께 성금 약 2억3천만원을 모아 농어촌 및 대구·경북 등 취약계층에 전달합니다. 사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부서장급 140여 명은 급여 일부를 반납하는 형식으로 급여 4개월 분을 기부하고, 일반직원들은 모금을 통해 성금을 마련했습니다. 임금 반납분은 농어촌 지역경제 및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고 일반직원들이 모은 성금은 대구·경북 지역 18개 지자체에 기탁 완료하여 지역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공무원과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에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임대료 감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국민이 농업 인프라 목적이 아닌 수상레저, 유도산업, 사무용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별도로 허가를 해주는 사용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허가 제도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사용허가 월 사용료의 30%를 감면 중에 있습니다. 기존 수면·시설 사용자뿐만 아니라 신규 및 재허가 대상자도 임대료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일반자산에 대해서도 6개월간 월 임대료의 30%를 감면하고, 감면기간 종료 이후에는 1년간 임대료를 동결합니다.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지원금액은 약 11억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화훼농가, 사회적기업 등 지원 행사 개최

농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농산물 판매 촉진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졸업식, 입학식 등 행사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위해 꽃 소비 활성화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사무실 내 꽃 생활화 차원에서 1 Table 1 Flower 행사를 진행하고, 공사 건물 내 중대형 화훼장식 설치 캠페인으로 꽃 9만 송이를 구매하였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는 지역 복지관 홀몸 어르신 160명에게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전달하는 행사도 가졌습니다. 접촉 최소화를 위해 꽃바구니를 복지관에 전달하고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하여 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농산물, 가공품을 구매하는 비대면 장터(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한 선 예약 후 배송 방식)를 개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노조는 노동조합비로 지역농산물 3억원 구입 지원하였고, 절약한 노조활동비를 조합원들에게 지역 상품권으로 배포하여 지역 상권 살리기에 동참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도시락·김치 전달

복지시설 휴관, 외출 자제 등으로 식사 해결이 어려운 지역 취약층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계절김치를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 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나주시노인복지관 지역 어르신 100여 명에게 복지관이 휴관하는 3주간 밀반찬과 국으로 구성된 도시락 세트를 배달하였고, 광주·전남 지역 7개 복지시설에 지역 농업법인에서 담근 배추김치와 깍두기 약 2,000kg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에 힘을 보태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코로나19 감염 관리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심 증상을 보이는 직원과 직원가족의 건강상황을 매일 관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 방지 대책 마련 등 코로나19에 대한 내부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합니다. 더불어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공급업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내 코로나19 대응 컨트롤타워 설치

본사 인사부서에 코로나19 감염 관리 컨트롤타워를 설치했습니다. 임직원과 임직원의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 되거나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인사부서로 실시간 보고 합니다. 보고 내용은 의심(확진)환자, 의심경로, 증상, 경위, 접촉(직간접) 현황, 추가 의심자, 조치 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고, 임직원이 해외로 출국(출장 또는 여행 등)한 경우에도 해당 부서에서 수시 보고하여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환자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일일식사 등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실천

긴급 복무관리지침 시행을 통해 확진자 및 접촉자, 의심 접촉자를 격리 조치합니다. 또한 전부서 20% 이상 재택 근무를 실시하고, 구내식당 2부제, 일일식사 등 직원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식사문화를 바꾸었습니다. 외부출입자 통제를 위해 출입구에 열감지기를 설치하고 사무실 방문 자제를 유도하며, 직원의 집합교육과 회의, 출장을 중지하고 일정을 조정하되, 시급한 회의는 화상회의로 대체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회의와 교육 시에는 손소독제 비치와 예방수칙 안내 등 정부의 행사 운영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응계획 수립, 건설현장 관리 등 확산방지 노력

사무실을 포함하여 접촉이 잦은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에 대해 매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예방수칙 안내 방송을 시행하고 환자 발생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수립하며, 사업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행동 매뉴얼을 실정에 맞게 보강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특히 농어업생산기반 정비 사업 등 건설현장이 많은 공사 사업 특성 상 사무소와 노동자 숙소 등 위생 실천 포스터를 부착하고 별도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용역사업, 국제농업협력 등 해외사업 비상대책팀 운영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분야에 축적한 농업기술과 노하우를 수출하는 관개배수, 지하수 개발 등 다양한 기술용역사업과 국제농업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해외에 파견된 공사 직원과 사업수행사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매주 코로나19 조치계획을 논의하고 실행합니다. 탄력적 재택근무 시행, 영상회의 개최, 일일보고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외파견자를 대상으로 인터내셔널SOS 가입을 추진하고, 마스크, 손소독제 등 물품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연장 조치 등 공급망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급업체가 계약을 문제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급업체가 업체 직원의 안전 확보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원재료 확보 지연 등으로 기한 내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지체상금 부과 없이 계약 일시정지, 계약기간 연장 조치를 통해 안전한 계약 수행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선금 2천억원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농업 SOC 분야 자금을 교부액 대비 87%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사무실 폐쇄, 기자재 수급 차질, 협업사업 일시 중단, 교육 행사 연기 등 사업 중단과 지연에 따른 직간접적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코로나19 종료 시기별 사업추진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공사의 여러 가지 노력 중에서 농촌관광 활성화와 해외사업 피해에 대한 극복 노력을 소개합니다.

농촌관광 피해 복구를 위한 『농촌관광119』가동

코로나19로 인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지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전례 없는 여행수요급감에 공사가 관리하고 지원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방문객과 매출액도 급락했습니다. 여행사와 연계하여 개발 운영하는 농촌여행상품은 표본조사 결과 현재까지 3월 예약이 100% 취소되었고, 4월은 신규예약이 전혀 없거나 연계 여행사 중 영업을 중단한 곳도 있습니다. 이에 공사는 관광객 안전과 농가경제를 지키는 『농촌관광119』를 가동했습니다. 지역 농촌체험마을협의회를 중심으로 위생·안전 이슈에 대한 비상시스템을 운영함과 동시에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추어 대규모 농촌관광 붐업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농촌관광 팸투어를 진행하고,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이 참여하는 2천 명 규모의 농촌관광 체험단 운영 등 체험 기반 바이럴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민 대상 농촌으로 여행가기 로드 캠페인 개최 등 각종 행사와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자·농기계·스마트팜 기술 등 비대면 B2B 수출상담회 지원 등

전세계적 전염병 확산에 따라 해외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현지 시공사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기자재 수급 차질이 빚어지는 등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농산업기술의 해외 진출도 B2B 행사 개최가 미뤄지는 등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는 코로나19 대응 단계별 공정만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국내에서 제작 가능한 시설(기자재)은 국내

사전 제작 후 해외 설치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B2B 수출상담회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변경하여 종자·농기계·스마트팜 등 우리 농산업기술의 해외 수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UNGC 가입
2010. 9. 4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으로 '92년 설립되었습니다. 공사의 설립 목적은 정부를 대행하여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데 있습니다. 무역보험제도는 기업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금융기관이 수출금융을 제공하고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수출을 간접 지원하는 제도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이 무역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을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라고도 합니다. '19년도 기준, 무역보험 지원실적은 20,000여개 수출기업 앞 155.8조원이며, 대한민국 수출의 20% 이상이 무역보험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무역보험 지원체계 가동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비즈니스가 중단되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수출지원의 최일선에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대한민국 수출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기업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추진단을 발족하면서 무역보험 총력지원 방안을 시행하였습니다. 우선, 대면 접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보험청약과 심사가 가능하도록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비대면 청약과 심사가 가능하게 되어 수출기업에 대한 차질없는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 및 주요 정책금융기관과 합동으로 코로나19 무역금융 활용 설명회를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는 수출신용보증 만기시점에 무감액을 연장하는 한편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긴급 수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보험료 및 보증료는 할인해주는 등 중소기업 전용 지원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법인에 대한 유동성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사는 '20.4월말까지 총 11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바이어의 비즈니스가 중단되면서 수출오더가 취소되거나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이 기한내에 입금되지 못하는 등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공사는 미국, 중국, EU 등 주력 수출시장 소재 바이어들과 거래하는 한국 수출기업의 수출대금미회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무역보험 한도 10.5조원을 감액 없이 연장하는 조치를 즉각 실시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마스크 필터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마스크 필터를 즉각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보험 지원 대상 품목에 마스크 필터를 추가하고

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무역보험 고유의 사업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동시에 공사는 사옥에 입주한 12개 소상공인이 매출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하여 6개월간 임대료 30%를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였고, 17개 국내 지사에 자매결연을 맺은 사회복지시설 앞 34백만원을 기부하는 한편, 전국재해구호협회 앞 20백만원을 기부하여 대구경북 의료진 앞으로 흉상 등 응원키트를 전달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코로나19가 고조되기 시작한 '20.1.30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복무지침을 마련하여 선제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의심증세가 있는 직원에 대해 휴가조치 등 적극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20.2.12일에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임신부 직원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부 재택근무를 전격 시행하였고, '20.2.28일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비상시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업무 지속계획을 수립하고 전사적 비상대응 체계를 관리하는 T/F를 구성, 발족했습니다.

이후 '20.3.5부터 '20.5.4까지는 팀원급 직원을 대상으로 교대제 재택근무를 본격 시행했습니다. 정보보안 이슈로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이 단절되어 있는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

시스템망을 전격 확대하여 수출고객의 불편함이 없는 재택근무를 완벽히 실시하였습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을 전격 도입하여 정부의 경영평가시 화상회의 센터로 활용되는 한편 국내외 지사간 회의를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방역 및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로비 출입구에서부터 열화상 카메라 운영을 통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전 부서에 체온계를 배포하고 매일 2회씩 전직 원에 대한 발열체크를 통해 직원 개인의 건강이상 유무를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건물 내 특별방역을 수 차례 실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자를 매일 발송하여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전사적인 노력으로 코로나19 관련 단 한 건의 사례도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 완벽히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 낼 수 있었습니다.



공사는 '20.5.4자로 재택근무 체제를 종료하고 전사 정상 근무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활력제고 지원,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확충지원, 무역보험 문턱 완화 등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무역보험 총력지원 방안을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UNGC 가입
2014. 11.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초예술 창작과 국민 문화예술 향유 지원,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훌륭한 예술은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함을 임무로 삼고 있습니다.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1973년 개원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모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장 문화예술인 10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합의제 문화예술 행정기관으로 2005년 새출발하였습니다.

문학·시각예술·연극·음악·무용·전통예술 등 기초예술 분야의 창작 지원,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및 문화예술향유 지원, 남북 및 국제 문화예술교류 지원, 신진예술가 및 현장예술인력 육성 지원, 지역문화예술 지원 및 협력, 예술나무운동 및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직원 성금 모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모금희망자를 대상으로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기본급(봉급)에 대해 0.3%를 일괄 원천징수하여 모금하였습니다. 2020년 4월 기준으로 총 92명이 동참, 1,103,530원의 성금을 모금하였습니다.

예술나무로 다시, 봄! 캠페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문화예술계 전반의 분위기가 위축되고 있으며, 장기화 조짐으로 예술단체 및 예술가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문화예술 대표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을 주제로 한 국민들의 심리 치유를 기획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계의 유일한 모금 브랜드인 ‘예술나무’를 활용하여, 코로나 이후 극복을 위한 특별 모금 프로젝트 ‘다시, 봄!’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연 성수기인 3~4월, 봄을 잃은 문화예술계에 다시 봄(Spring)을 선물한다는 의미와 피해를 다시 살펴본다(See, Care)는 의미를 연결하였습니다. 예술위가 직접 적극적인 모금자 역할로 나서, 유관기관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여 2020년 4월 기준 약 1700만원의 모금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소중한 모금액은 예술인복지재단에 전달, 피해를 입은 예술단체 및 대구 경북 지역 등에서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전달할 예정입니다.

마스크 제작 기부 사회공헌 활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마스크 기부 캠페인에 동참하였습니다. 지난 5월 6일, 임직원들이 면마스크를 직접 제작하여 소외계층에게 전달하기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스크 제작 기부활동을 추진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스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힘나는 예술여행> ‘덕분에 챌린지’ 동참, 예술 통해 의료진 응원

예술이 필요한 전국을 누비던 <신나는예술여행>이 올해는 <힘나는예술여행>을 추가하여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분들이 계신 곳을 찾아갑니다. <힘나는예술여행>은 5월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과 치료센터와 일정을 협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방문일로 정하여 신청한 병원과 센터에 예술단체들이 현장을 찾아가 예술로 휴식과 응원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환자분들의 쾌유와 예술단체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공연과 전시는 비대면·원거리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의료진과 환자 분들이 창문 너머로 감상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집콕', 공연계 온라인 실황 생중계로 극복

예술위의 창작산실은 공연 대중화 등을 위해 '2016 공연예술 창작산실' 때부터 본격적으로 네이버 TV를 통해 실황 중계를 해왔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네이버TV와 브이라이브를 통한 중계가 예고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국과 맞물려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예술위는 창작산실이 많은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 아닌 만큼, 공연 장소인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의 특별 방역을 진행하는 동시에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직접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관객들을 위해 공연실황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극단 수 '마트료시카'(2월23일)가 1만3707뷰, 극단 마고의 '아랫 것들의 위'(2월26일)가 1만8122뷰, 정형일 발레 크레이티브의 '스완 레이크 ; 더 월'(2월28일)이 1만5394뷰, 시나브로가슴에의 '히트&런'(3월6일)이 1만3627뷰를 기록하는 등 실황중계한 모든 작품의 조회수가 1만뷰를 넘어, 이러한 노력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에서 공연되는 공연실황 생중계 지원사업 신청도 시작하였습니다. 선정 단체에게는 공연실황 생중계 지원과 더불어 촬영된 영상의 편집본(생중계, 사전 홍보, 하이라이트)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원 대상 예방조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조치 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나주 본관 및 대학로 시설 현관에 체온계 및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 매일 체온을 측정하고 발열대장기록을 작성하였습니다. 37.5도가 넘는 고열일 경우 대기장소로 이동,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후 선별진료소로 이동하는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충분한 손소독제, 세정제, 알코올스왑 등을 구비하여 직원 대상 보건위생을 각별히 관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 복무관리 특별지침

사무실 밀집도 및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근태 관련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임신부, 자녀돌봄이 필요한 직원은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 지침 운영기간 동안 부서별로 2교대 재택근무 편성 및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 동안에는 사무실 출근자를 대상으로 Core Time(의무근무시간)제도를 시범운영하였습니다. 10:30~16:30까지(5시간)를 의무근무시간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3시간은 자율근무(지침 운영기간 동안 출·퇴근 시간 개별 자율 적용)를 통해 대인접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 점심시간을 지정, 시간대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군중 밀집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대면 회의·보고 및 출장, 이동 제한

내·외부 회의 및 보고는 영상 또는 서면 원칙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외 출장은 사회적거리두기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출장자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부서장은 출장자에 대하여 매일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출장에서 복귀한 후에도 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회식 및 단체 워크숍, 10인 이상의 사내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여 주의를 강화하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사)한국소극장협회와 함께, 민간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창작 발표부담 완화와 코로나19로 침체된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위해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1~2차 공모는 '19.12월~20년 4월까지 진행된 공연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연작품의 피해경감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항목 및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예술향유지원을 위하여 공연예술관람료 지원 사업 및 예술창작지원 확대를 통해 예술계 피해경감을 줄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UNGC 가입
2018. 5. 1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KEIT)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 R&D를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2009년 개원하여 투명하고 전문적인 R&D 지원으로 국가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산업핵심, 소재부품 등 85개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정부 R&D 예산의 8.43%인 2조 405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기획단계에서부터 평가관리 및 성과확산까지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전주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 R&D 언택트 평가

KEIT는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R&D과제를 기획하고, 과제를 수행할 연구자를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R&D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평가도입

코로나19 확산 지속 및 전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기존의 대면 평가위원회를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 R&D 지원의 연속성을 위해 온라인 전자평가 중심의 '언택트(비대면) 평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언택트 평가」는 평가위원이 사업계획서 목표 및 연구내용 등을 온라인 전자평가 시스템을 통해 검토한 후, 온라인 질의응답을 통해 최종평가 결과를 판단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언택트 평가 절차>

절차	검토 내용	주체
1차 질의/응답 (온라인)	사업계획서 검토 및 1차 질의서 작성	평가위원회
	답변서 작성(보완/증빙자료 첨부)	피평가자
2차 질의/응답 (온라인 또는 화상)	1차 질의-답변 검토 및 2차 질의서 작성	평가위원회
	답변서 작성(보완/증빙자료 첨부)	피평가자
종합의견서 작성	필요 시 평가위원간 토론을 위한 화상회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평가위원은 평가지표에 따라 의견 작성	평가위원회

보안 대비

언택트 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문제를 예방하고자 시스템 오픈 시간을 지정·운영하고(07~22시), 평가위원 2차 인증절차 마련,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평가위원 행동강령 및 보안서약서 명확화, 유출방지(스크린샷/녹화 등) 시스템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선별 적용

언택트 평가는 상반기 예산 지원이 시급한 계속 과제, 수행기관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없는 단독용모 과제에 우선 적용하고, 집중토론이 필요한 대형과제는 평가위원만 소집(평가위원회↔신청기관 화상회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

KEIT는 평가위원 등 모든 외부 방문자에 대한 4단계(열화상 카메라→ 체온계 체크→ 건강 모니터링(QR코드 관리)→ 손 소독 후 출입)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콜센터 코로나19 대응지침(고용노동부, '20.3)을 준용하여 평가장 내 비말 감염방지를 위한 투명 칸막이① 및 천장형 마이크②를 설치하고, 공기청정기/바이러스 살균기를 운영하며, 1일 1회 방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형과제 언택트 실제평가 현황>

사례전파

KEIT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과 온라인 평가경험을 공유하였고, 평가위원 공동활용 등의 협력방안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KEIT는 언택트 평가에서 발생하는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며, 산업기술 R&D 조력자(facilitator)로서 선도형 R&D를 이끌고 동시에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기술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사전대비

KEIT는 코로나19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20.2.3)에 따라, 기관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을 가동하였고, 비상상황에서도 고유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KEIT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ning)'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직장폐쇄에 대비하여 기관 핵심 부서 및 업무 분류, 업무시 감염자 혼재 예방을 위한 교체근무 방안마련, 비상시 대체근로자 확보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였고, 부서별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실시하되, 호흡기 질환자, 기저질환자, 임신부, 초등학생 이하 자녀 돌봄자를 재택근무 우선 직원으로 배려토록 하였습니다.

업무지속계획(BCP) 유의사항

I. 재택근무

- 재택근무 인원은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본원 직원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대전본원, 서울사무소의 경우도 부서장의 재량에 따라 신속하게 실시

II. 정보보안

- 재택근무일지는 전산으로 복명하고, 7일 이내 부서장 승인
- 재택기간 동안 가상사설망시스템(VPN)을 활용하여 원외 접속 허용
-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 USB를 사용하되 관리자 승인 필수
- 원외업무시스템에 첨부파일 업로드 시 반드시 백신으로 검사 후 첨부(PC방 접속금지)

III. 안전물품 수급 및 보급

- 마스크는 재고 3,000개, 손소독제는 100개 수준에서 발주
- 재택근무자 중 노트북 지급(30대)
- 직원 숙소 내 격리직원의 생필품 조달(라면, 핫반, 생수 등)
- 대구-경북지역 마스크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마스크, 손세정제 등 코로나19 물품을 대구시, 대구지역사회 복지시설, 청도읍에 기탁

IV. 대외홍보

-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원내 상황과 국가 정책을 신속하게 제공



실제상황

KEIT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확진자 발생이 높았던 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제(3월 2일, 14시) 기관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발생하여, 즉시 확진자 발생대비 비상 시나리오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고, 추가 확진자 발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확진자 발생 후 당일 경과 조치

14:00

보건당국과 조치사항 협의

- 1339 콜센터, 대구광역시, 대구 동구 보건소(053-662-3201)
- 대구시 환자 급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속한 자체 의사결정 필요
- 2차 접촉자를 파악하고,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검진 요청

14:45

확진자 동선을 중심으로 2차 접촉자 파악

- 2차 접촉자(21명) 즉시 귀가, 자가격리 요청(2주)
- 확진일 기준 14일간의 동선에서 2차 접촉자(원내 직원 및 외부고객 포함)를 파악하여 접촉사실을 안내하고 증상을 모니터링(개별진료(검사) 요청

16:00

본원폐쇄 및 즉시 방역 실시

- 2일간(확진자 발생 당일 및 다음날) 방역실시 후 재개방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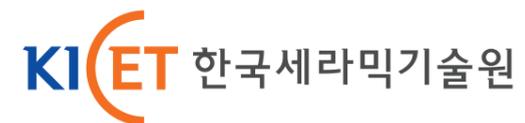
19:00

정보공개

- 보도자료, 홈페이지 팝업, SNS(페이스북)를 통해 확진자 발생 공개

한국세라믹기술원

UNGC 가입
2019. 9. 5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세라믹 분야의 첨단 신소재 세라믹 연구개발은 물론 시험·분석·평가, 기업지원,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의 미션을 가지고 세라믹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해온 대한민국 유일한 세라믹 전문연구기관입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입주기업 임대료 감면, 계약업체를 위한 예산 조기입행, 취약계층 대상 사회공헌 확대와 같은 자체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회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 내창업보육센터 총 47개 입주기업의 월 임대료를 30% 감면하였습니다. (3월~5월까지 약 17백만원) 그리고 당초 계획된 예산 집행률 16.6%(0.95억원)대비 대폭 상향된 61.9%(3.54억원)을 상반기 예산 집행률 목표로 설정하여 계약업체의 자금확보를 적극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이 어려워진 지역 화훼농사의 장식용 꽃을 매월 구입(약 1백만원)하고, 지역 내 공공기관간 '꽃 선물하기' 캠페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공헌 확대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극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CEO의 월급을 일부 반납(3~6월, 월별 30%)하고, 200여명 직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조성된 성금 약 1천 4백만원을 지역 복지단체에 기부(4월)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분기별로 진행하던 헌혈을 월별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정부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됨(2.23)에 따라 비상운영체계를 구축(2.24)하여 임직원의 건강, 입주기업 상황, 전국 세라믹업체의 피해현황 등을 매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과 전파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함께 추진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기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체계 가동

CEO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대응조직을 즉시 운영하여, 코로나19 관련 외부 동향을 수집·분석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업장 방역 관리(경남 진주, 경기 이천, 경기 부천), 직원 복무관리, 정부유관기관·지자체 연락체계 유지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동시에 임직원, 입주기업, 전국 세라믹 업체가 감염병의 출처와 전파 속도를 고려한 단계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매뉴얼을 배포하였습니다.

복무지침 시행을 통한 직원 복무관리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접촉자, 확진자 등을 격리하도록 조치하고, 부서별 적정 비율을(20~50%) 정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재택근무 시 입산부, 기저질환자 등을 우선고려하도록 하였으며 부서장과 전담부서 실무자는 정상근무하여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출장과 여행은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해외여행, 위험지역 방문 후 의심증상 발생 시 자가격리 및 재택근무 후 결과에 따라 출근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적극적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유연근무제 활성화, 구내식당 시차운영(2부제), 다중이용시설(휴게실, 운동장, 헬스장 등)을 일시폐쇄하여 코로나19 감염과 전파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출입구

열화상카메라 설치로 발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식당, 엘리베이터 등 이용시설에는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배너를 설치하여 코로나19 예방 인식을 환기하였습니다. 또한 전직원에게 마스크를 배포하고 손세정제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엘리베이터, 출입구, 구내식당 입구 등에 비치하였고, 전직원 1일 2회 발열과 증상을 체크하는 등 철저한 예방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공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매(Buy)-소비(Consume)-기부(Donate)를 부서별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하여 직원이 자유롭게 구매, 소비한 재화 및 서비스 등을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에게 기부하도록 캠페인을 개최하고, 기관이 보유한 자산과 예산을 절감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임업진흥원

UNGC 가입
2017. 11. 10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산림소득증대와 산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2012년 개원한 산림청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진흥원은 '지속가능한 임업을 선도하여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임업서비스 전문기관'이 되기 위하여 '산림 소득증대 및 임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미션 하에 '임가 경쟁력 강화', '임산업 성장동력 확대', '산림의 효율적 활용 체계 구축'의 3가지 전략목표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임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업인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청정임산물 생산·마케팅지원, 산촌마을 육성사업 및 '임산업 성장동력 확대'를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목재 품질 안전 관리, 중소 목재기업 성장 지원, 산림 과학기술 실용화 촉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의 효율적 활용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림 병해충 방제, 산림인증, 산림탄소상쇄, 산림정보구축·활용 등 임업·임산업의 사회적·환경적·경제적가치를 창출·확산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임업·임산업 분야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진흥원은 기존 임직원 대상으로 운영되었던 '코로나19 비상대응단'에 '산업지원반'을 신설하여 임업·임산업 분야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지원 체계 및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임업·임산업분야에서는 특히 산나물을 재배·판매하는 임업인들의 피해가 가장 심했습니다. 산나물은 재배 특성상 4~5월에 대량 출하되는 품목으로 매년 전국에서 다양한 산나물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인하여 전국의 산나물 축제가 대부분 취소되어 임업인들의 판로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접촉을 최소화하는 '산나물 드라이브스루 마켓'을 기획하였습니다. 먼저 약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가능한 약 2ton의 제철 임산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진흥원은 임업인들에게 물류비 및 포장을 지원하여 시중가보다 최대 30% 할인된 착한 가격으로 신선하고 우수한 제철 임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중 봄철에만 맛볼 수 있는 제철 임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임가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행사 첫날부터 많은 지역주민들이 찾아주었습니다. 이에 진흥원에서 준비한 산나물꾸러미 3,000개를 비롯한 산나물 단품 1,600개 모두 3일 연속 조기완판 되었으며, 임업인들에게는 판로개척을,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신선한 제철 임산물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온라인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여 코로나19에 지친 임가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임산물 판로 촉진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임업인·귀산촌 교육도 모두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진흥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의 기회가 단절된 임업인들에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밴드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하여 비대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누워서 임업속으로'를 기획하였습니다. '누워서 임업속으로'는 코로나19로 변동된 정책 소개부터 임업멘토 특강, 귀산촌 준비 방법, 산양삼 재배방법 등 총 24개의 콘텐츠를 매주 온라인으로 임업인들에게 제공하여 임가 재배 및 귀산촌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자발적 학습기회와 귀산촌 준비의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임산물 재배기술은 유튜브를 통한 재배기술 교육영상 자료 46개를 제공하였으며, 영상이 없는 품목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받아 재배기술 매뉴얼 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코로나19 대응기간 동안 총 200건 이상의 매뉴얼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생들의 각종 문의 사항은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전화상담 등 비대면 접촉 상담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교육희망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그 결과 3월부터 진행된 '누워서 임업속으로'는 임업인 및 귀산촌 교육생들의 많은 호응을 받아 현재까지 콘텐츠 구독자 수가 약 3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고령자가 많은 산촌마을의 코로나19 확산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에 진흥원은 산촌생태마을, 산림형사회적기업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손 소독제, 손 세정제 등 방역물품을 전달하고 산촌마을의 코로나19 확산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산촌마을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월 24일 진흥원에서는 임직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즉각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고객지원센터에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와 방역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비치하여 진흥원을 방문하는 고객들에 대한 방역도 실시하였습니다.

2월 24일과 25일, 연속적으로 진흥원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기관장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대책을 수립하고자 개원 이래 최초로 비상경영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전사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기관장을 단장으로한 '한국임업진흥원 코로나19 비상대응단'을 구성하였으며, 상황대책반, 안전관리반, 안전교육반, 현장대응반으로 나누어 대응을 실시하였습니다.

상황대책반은 국내 코로나19 현황 및 정부·질병관리본부 브리핑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변화하는 정부대응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였으며, 전 직원 출장 및 회의 자제, 위험지역 방문자 자가격리 실시 등 강도 높은 방역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안전관리반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1일 3회 접촉 시설 및 주 1회 진흥원 시설물 전체 방역, 열화상카메라, 손소독제, 세척제 등을 비치하여 근무지 내에서 24시간 방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외부 회의 대신 화상회의 시스템을 갖추어 업무 공백을 최소화했습니다. 안전교육반은 정부방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지침'을 작성·배포하였으며, '재택근무 운영 업무 매뉴얼'을 배포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효율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대응반은 각 부서의 부서장을 중심으로 부서원들의 발열체크, 위험지역 출장 및 방문관리, 재택근무 복무관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즉각적·체계적인 대응 노력 덕분에 현재까지 진흥원 내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0명이었으며, 앞으로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라 생활방역으로 전환하여 임직원 안전관리를 위한 내부대응을 지속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흥원의 인도네시아 및 파라과이 해외법인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지 정부지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매일 2회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직원 보호를 위한 국내·외 코로나19 대응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백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진흥원은 정부방침을 예의주시하며 생활방역을 꾸준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안정된 이후 임산물 프로모션 행사 및 가을 임산물 대축제 등을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상 대책을 알려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임업·임산업 전 분야의 고객·임업인과 소통 간담회, 동반성장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계획을 세워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임업인, 귀산촌 3월 교육은 안타깝게 취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3월 알림

<p>10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 귀산촌 교육 소개 임업멘토가 알려주는 산양삼 	<p>17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교육관 영상 귀산촌 준비는 어떻게? 임업멘토가 알려주는 산양삼
<p>24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배기술 영상(영주센터) 귀산촌 지원정책 소개 임업멘토가 알려주는 산나물 	<p>31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배기술 영상(부여센터) 귀산촌! 성공해볼까? 임업멘토가 알려주는 표고

👤 댓글을 달아 보세요. 😊 전송

한국중부발전

UNGC 가입
2018. 4. 18



한국중부발전은 2001년 4월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전력자원의 개발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보령발전본부를 비롯한 7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설비용량 10,727MW 를 보유하여 국내 전력생산의 8.5%를 담당하고있습니다.(2020년 2월 기준) 당사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는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발전사업 경쟁력 제고, 친환경 사업선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충청남도 보령시로 본사를 이전한 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복지 향상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맞춤형 지원 시행

중부발전 노사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노사공동TF'를 개최하여 착한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취약계층에 마스크 및 세정제를 보급하고, 지역내 소독 방역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로의 감염을 차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농산물, 화훼농가, 지역상품권 등의 구매를 통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소비진작에 앞장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격리시설이 운영되던 아산과 진천 지역에 위생용품과 생필품 공급을 위해 2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계속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제품 우선구매, 지역산업 육성, 주민지원 공헌사업에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호복 1만벌 기부, 인도네시아의 의료진 지킨다

중부발전은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10만달러 상당의 방호복 1만벌을 인도네시아 중앙 재난지청(BNPB)과 운영사업장이 위치한 짜레본, 쓰빠라, 까로, 람퐁 지방정부에 기부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운영 중인 짜레본 발전소는 짜레본시와 협약을 맺고 발전소에서 생산한 치아염소산 나트륨(NaOCL)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치아염소산 나트륨은 흔히 '락스'로 알려진 살균제입니다. 중부발전은 발전소 내 해수담수화 중간처리 과정에서 치아염소산 나트륨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물질을 짜레본 방역당국에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부물량은 코로나19 종결시까지 하루 약 10톤이 공급됩니다.

혈액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다

중부발전은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헌혈감소로 혈액수급이 악화됨에 따라 본사를 포함한 전국 7개사업소 임직원 600여명이 헌혈행사에 참가하였습니다. 헌혈차의 사업소 방문 및 직원의 혈액원 직접방문을 통해 헌혈을 함으로써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공동 금융지원을 위한 'KOMIPO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펀드' 조성·운영

중부발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협력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코로나19 중소기업 피해 지원센터' 핫라인을 개설하고,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중소기업 제품 전용 온라인 복지물(동반성장물)을 통한 예방물품 지원 등 협력기업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동반성장 상생펀드'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 20억원을 조성해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리보다 최소 1.2% 이상 금리감면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예산 중 조기 집행을 통해 1,279억원 상당의 중소기업 제품구매 및 용역·공사 발주로 협력기업의 피해극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 위기대책본부 운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 심각단계를 '20. 2월 발령하고, 경영진을 포함한 감염병 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하였으며, 코로나19 위기대응 상황실을 가동하여 직원, 협력기업직원, 외부방문객으로 구분한 자가진단 제도를 통하여 감염 우려자를 매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예방격리를 시행하였습니다.

사외교육 중지, 해외출장 금지, 대면회의를 화상회의로 대체, 국내출장 자제, 근무지 외 이동 자제, 해외 입국가족이 있는 직원의 예방조치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및 가상회의 시행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임직원 유연근무제를 적극 시행하였고, 재택근무 또한 임신부 등 고위험군, 자녀 돌봄이 필요한 직원 등을 우선하여 부서별 1/3수준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CEO와 함께 온라인 간담회와 사업소 온라인 구매상담회 화상회의 시행, 국내 사업장 및 해외사업장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하여 신속한 의사소통, 의사결정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항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대상 보건 및 복지 서비스 제공

중부발전 임직원의 코로나19 예방 및 차질 없는 전력공급을 위하여 회사 출근시 발열체크, 사무실 및 출입구에 손소독제 및 체온측정용 열화상 카메라 비치 등 개인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전 청소시간을 활용하여 사무실, 엘리베이터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내부 방역활동을 시행하고, 코로나19 블루 극복 및 면역력 강화를 위한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상담, 부족한 운동량 확보를 위한 홈트레이닝 도구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중부발전 코로나 확진자 '0'

한국중부발전은 현재 협력기업 직원을 포함하여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자 '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확진자 발생 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단계별 감염병 비상대응 및 업무지속계획(BCP)을 수립하여 위급상황에 대하여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사 및 사업소에 필수 필수근무자를 지정하여 확진자 발생상황을 대비한 분리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중부발전은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DGB금융그룹

UNGC 가입
2006. 7. 18



DGB금융그룹은 국내 최초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5월 설립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비은행 사업라인 강화 및 수익원 다변화를 기함으로써 DGB대구은행, 하이투자증권, DGB생명, DGB캐피탈, DGB자산운용, DGB유펜이, DGB데이터시스템, DGB신용정보 등 계열사 8곳을 보유한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꿈과 풍요로움을 지역과 함께’의 경영이념과 ‘미래를 함께하는 Best Partner’의 경영비전을 가지고 질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DGB금융그룹이 기반을 두고 있는 대구·경북에도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DGB금융그룹은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활용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국민 모두 장기간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힘든 시간을 함께 견디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위축된 경제활동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유통이 어려워지고 소상공인과 서민층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DGB금융그룹은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더욱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재난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DGB 현장지원단 운영

DGB금융그룹은 각 계열사의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기업들에게 신속한 금융지원 및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지원단은 DGB금융지주 시너지사업부, DGB대구은행 여신심사역과 기업컨설팅전문가, 하이투자증권 리서치&IB전문가, DGB캐피탈 기업여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자금지원, 금리감면, 대출상환 기한연장, 업황 정보제공, 회사채 발행, IPO관련 금융상담, 기업대출과 리스, 할부금융 등을 지원합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특별금융 지원

DGB대구은행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본격화된 지난 2월 초부터 1,000억원 규모의 특별 대출을 통해 직·간접 피해 기업의 초기 정상화를 지원하였습니다. 확진자 발생지역 외에도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도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범위를 확대해 지원하였습니다. 4월 초부터는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포용금융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 기업여신 비중이 50% 이상인 주거래 중소기업 중 제조업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외에도 DGB대구은행은 정부의 ‘금융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일환으로 소상공인 1.5% 초저금리 특별대출 상품을 판매하며, 코로나19 피해기업들을 대상으로 종합 상담팀을 운영하여 현장 방문을

통한 신속한 심사를 지원합니다. 또한 만기 도래 대출 연장, 6개월 이자 유예, 유예 이자 분할 또는 일시 납입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여 및 사업소득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DGB대구은행은 코로나19 피해 고객과 대구·경북 거주 고객 중 생활이 어려워진 급여 및 사업소득자 대상으로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17, 쓰담쓰담대출, 비상금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총 2,000억원 한도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고객의 경우 영업점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비대면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등 고객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보살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난 극복을 위한 기부 및 회사 인프라 제공

DGB금융그룹은 금융지원 외에도 인적·물적 자원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DGB금융그룹은 지난 3월 초부터 칠곡군 연수원을 경증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지원 업무가 폭주하는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에 인력을 파견하여 신속한 업무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고객 안내 및 서류 심사를 위한 인력을 파견하였으며 대구시 행정복지센터 139개소에도 선불카드 및 상품권 지급 업무를 위해 인력을 파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대구광역시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과 관련해 DGB대구은행 전 영업점에서 지원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DGB금융그룹은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해 성금 10억원을 기부하였고 기부금은 대구·경북에 각각 5억원씩 전달하였습니다. 기부금은 취약계층을 위한 구호물품 및 코로나19 피해자 구호사업과 의료진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DGB금융그룹 경영진은 지역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4월부터 7월까지 급여의 20~40%를 반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반납한 급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노동조합 역시 임직원들의 자발적 성금과 급여 1% 나누기 운동으로 구성된 성금 1억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영업점이 일시 폐쇄되고 내점고객 감소 및 영업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DGB금융그룹은 다양한 방안들을 통해 전사적으로 위기 대응에 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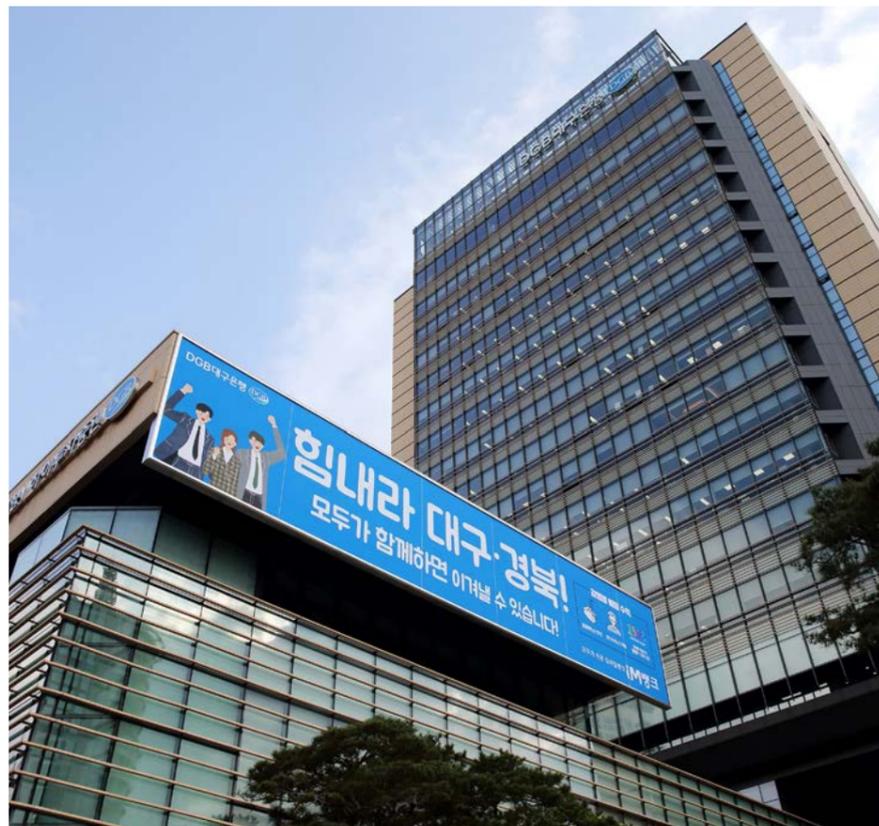
그룹 위기대응협의회 운영

DGB금융그룹은 코로나19를 비롯한 당 그룹 주요 위기요인들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그룹 위기대응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각 계열사의 경영 환경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그룹위기관리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DGB대구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를 가정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코로나19 발생 1년차와 2년차의 거시경제 변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영향도를 분석하였습니다.

위기대응 매뉴얼 가동

영업점 폐쇄에 대응하여 2차·3차 대체영업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부서별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여수산업부 및 고객지원 관련 각종 영업방안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담직원 교육과 비대면 채널 고객응대 강화, 온라인 상품서비스 마케팅, 코로나19 금융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비대면채널 영업 활성화 방안들도 시행하였습니다. 영업점 소독과 일시적 재택근무 및 분산근무, 임직원의 직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개인위생관리, 사회적거리두기 등 조직 내 코로나19 대응 노력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선제적인 금융 정책들을 내놓으며 위기 대응에 힘쓰고 있지만 금융시장과 실물경기의 동시 충격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소비심리가 악화되고 자영업자의 부실이 진행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수출산업의 경기가 악화되어 자동차, 기계, 철강, 섬유 등 주요업종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부품산업이 주요 기반인 대구·경북 지역의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DGB금융그룹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대응을 위해 리스크 관리, 경영효율화, 대고객 관리 등 세부 실행계획과 로드맵을 도출하고 각 계열사 및 부서별로 업무와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특히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 해외 법인의 자산현황을 점검하고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대면 서비스 강화를 위한 디지털 업무환경 구축

향후 코로나19로 금융시장에서의 영업환경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DGB대구은행은 미래 영업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자문서 처리와 후속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업무자동화(RPA) 적용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변화하는 근무 형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KT

UNGC 가입
2008. 5. 9



KT는 지난 130여년간 대한민국 ICT를 이끌어온 통신종가로서, 고객 중심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주도하는 국내 최대 종합 통신 사업자입니다.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KT는 초고속인터넷부문 약 41%, IPTV부문 약 46%, 무선통신사업 약 30%(MVNO 제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T그룹은 ICT역량 및 혁신기술과 42개 그룹사의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의 융합을 통해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가장 빠르고 유연하게 제공하는 기업, 다양한 사업의 혁신을 리딩하는 기업으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착한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국내 1위 인공지능(AI)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기가지니’를 통해, AI 아파트/호텔 등 AI Space 시장을 선도하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KT는 경제적 가치 창출뿐 만 아니라,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KT는 NCSI(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4개부문 1위에 오르며 4관왕을 차지하였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고객 요구에 맞춰 꾸준하고 진정성 있는 서비스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KT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의 네트워크 품질과 AI 등의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따뜻한 기술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고,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기업가치 향상을 꾀하며, 기업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KT는 코로나19대응을 위해 '16년에 런칭한 감염병 확산방지 프로젝트(GEPP) 및 사회공헌 사업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감염병확산방지 프로젝트(GEPP)

GEPP 런칭 후 감염국 경유자의 검역률 증가로 국내 확산방지에 기여 중입니다. 또한 국내 확진자에 대한 동선 파악을 통한 추가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성 다양한 지원 활동

(1~2월) 우한교민 격리시설 지원

- 1, 2차 우한교민 격리시설인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구호키트 170세트 제공(1.29)하였습니다.
- 3차 우한교민 격리시설인 이천 소재 ‘국방어학원 상황실 및 우한 교민 객실’ 내 IPTV 303건, 인터넷 39건, 와이파이 96건 등 통신 서비스 지원을 완료 하였습니다. (2.11)

(2~3월) 대구시 협력을 통한 대구 의료진 지원

- 대구지역 파견 의료진 대상 단기 휴대폰 140대 및 통화료 무료 지원하여 대구 경북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에게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KT단독)
-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입원병상으로 추가 지정된 대구 보훈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긴급 상황을 원활히 공유할 수 있도록, KT 파워텔 LTE 무전기를 긴급 지원하였고, 의료진들이 잘 활용하고 있다는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3월) 119 구급대원대상 KT사랑의 밥차 운영

- 코로나19 환자 이송을 위해 전국에서 모인 119구급대원(약 300명) 대상으로 KT사랑의 밥차 무료급식 운영하였습니다.

(3월) KT, ICT서비스로 ‘코로나19’ 극복 지원

- KT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발맞춰, 스타트업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 무상 지원 프로모션,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기업·기관에 화상회의 솔루션 무상 지원, 전국 120개 대학 인터넷 용량 긴급 증설 및 전담인력 투입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KT는 대구, 경북지역 고객사 중 최근 온라인 트래픽 사용량이 급증해 서버 증설이 필요하거나 단기간 사용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CDN 서비스를 무약정 및 단기 계약(1개월 이상)으로 제공하며, 제공 기간인 5월 31일까지 요금할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KT 클라우드 신규회원 또는 가입 후 1개월 이내 고객에게 KT 클라우드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100만원 상당 쿠폰을 지원, 화상회의 솔루션, 영상상담 솔루션을 일정기간 동안 무상 지원, 비즈메카 화상회의 서비스도 무상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KT 화상회의는 별도 장비 구축 없이 PC나 모바일에서 실시간 회의와 교육을 할 수 있는 양방향 영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일대일, 다자간 회의, 세미나 모드를 지원하는 협업 플랫폼입니다. KT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기업·기관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무상제공하고, 원활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서버 증설 등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KT는 이미 시작된 각 대학들의 온라인 강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인터넷 용량을 긴급 증설하고, 전담 인력을 투입하였고, 사이버 개강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ICT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기술지원체계를 준비했습니다.



(3~4월) [사랑나눔 1탄] 광화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사랑나눔 도시락 제공

- 코로나19 여파로 주변 직장인들의 재택근무가 늘고, 유동인구가 줄면서 광화문 인근 식당들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T는 코로나19로 크게 70%까지 매출이 감소한 소규모 식당들을 돕기 위해, KT 광화문 사옥 인근 식당을 통해 직원 중식용 도시락 주문하여 배포 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KT 인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사랑나눔 도시락'을 제공하여, 사회 구석구석의 상처들을 함께 극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4~5월) [사랑나눔 2탄] 사랑의 농산물꾸러미 판매(온라인/오프라인)

-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정된 온라인 개학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급식 납품업체에서 구매한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를 임직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급식 납품업체들은 3월부터 개학 준비에 나서야 했으나, 온라인 개학으로 납품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T는 서울 친환경 유통센터의 추천을 받아 피해가 가장 심각한 생산자 단체 2개를 이번 오프라인 장터 참가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농산물 꾸러미를 준비한 한 농업회사법인 대표는 "온라인 개학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직원 월급까지 걱정하는 상황"이었다며, "KT에서 우리 업체에 먼저 손을 내밀어줘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5~6월) [사랑나눔 3탄] 사랑의 소극장 티켓 판매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연예술계, 특히 소극장의 피해가 심각하여,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소극장 10개 극단 티켓을 선구매후 15,000원 티켓을 임직원들이 3,000원에 구매해(회사지원금 12,000원) 소극장들을 도왔습니다. 이는 임직원 참여를 통해 소극단 지원 및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방안으로 코로나19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 코로나19 전담 종합 상황실 구성하여, 전사 신종 코로나19에 대한 행동요령 One voice 커뮤니케이션 및 전담 대응하였습니다.
- 출장 및 해외 방문 금지 또는 최소화를 통해 임직원 감염경로를 차단하였습니다.
- 전직원 50% 순환 재택근무를 시행하였습니다. 대구경북 임직원들의 경우, 상황 안정 시까지 100% 재택하였으며, 동시 감염 risk 예방을 위해 주요 직책자 및 임원도 순환 재택 실시하였습니다.
- 마스크 미착용 시 사옥 출입 제한 및 초반 위급 상황 시 마스크를 배포했습니다.
- 출근시간 사옥 유입 임직원 대상 열화상 카메라 운영관리를 통한 체온 검사 실시하였습니다.



LG전자

UNGC 가입
2010. 1. 21



LG전자는 전자제품, 모바일 통신기기 및 가전제품 분야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전 세계 140여 개 사업장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해 2019년 매출액 62조 3,06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LG전자는 홈 어플라이언스&에어 솔루션(H&A), 홈 엔터테인먼트(HE),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즈(MC), 비이클 컴포넌트 솔루션(VS), 비즈니스 솔루션(BS)의 5개 사업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TV, 세탁기, 냉장고, 휴대폰, 자동차 부품 등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고객, 환경, 협력회사, 지역사회,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성장과 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경제, 환경, 사회 측면에서 중장기 관점의 3대 지향점 및 9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존중의 경영',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중장기 지속가능경영 3대지향점인 '지능형 라이프 스타일 촉진', '탄소 중립 및 순환경제실현', '더 나은 사회구현'을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빠른 증식에 도움이 되고자 지원 및 기부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지역별 지원규모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국내 기부활동

- LG전자 생산사업장이 소재한 평택, 창원, 인천, 구미 지역 거점 병원 및 보건소에 공기청정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을 기부했습니다.
- 대구 의사회에 의료용 방호복 3천벌을 기부했습니다.
- 온라인 개학에 대비하여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온라인 교육용 스마트패드(G Pad3 8.0) 6,00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 병원내 감염 위험과 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방문자 체온측정 및 간단한 문진 등이 가능한 안내로봇, 청소로봇을 서울대학교병원에 무상 렌트 하였습니다.
- LG그룹 주관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50억원)에 동참하여 확진자 및 지역사회 감염 예방, 지역 취약 계층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2억원 규모 긴급 구호자금 지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과 구성원이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헤쳐나가고자 친환경 사회적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LG소셜캠퍼스'에 선정되어 활동 중인 사회적 기업에 LG화학과 함께 총 2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해외

1. 아시아

- 인도: 봉쇄 조치로 일용직 노동자 등 저소득층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LG전자 인도법인인 100만명 분량의 음식을 기부하였고, 공장 주변의 취약 계층 1,000명에게도 식료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인도 병원과 격리시설에 공기청정기, 정수기, TV, 의료용 모니터 등 2,215대의 제품과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기부했습니다.
- 베트남: LG계열사와 2억원 상당의 진단키트와 방호복을 지방정부에 지원했습니다.
- 인도네시아: LG계열사와 6억원 상당의 진단키트 5만회분을 국가재난방지청에 기부했습니다.

2. 유럽

- 영국 : 런던의 피카딜리 자사보유 옥외광고판에 영국 정부의 코로나 방지 캠페인 슬로건을 활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독려 및 NHS (National Health Service)에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 이탈리아, 폴란드, 터키: TV,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노트북 등 가전제품을 국공립 병원 및 고아원 등에 기부했습니다.

3. 미주 (미국)

기부활동

-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주(state)정부에 N95마스크 및 수술용 마스크 약 30만개를 지원했습니다.
- 뉴저지주 정부에 의료용 모니터 50대를 기부했습니다.
- 호스피스 병동 및 격리 병동에 있는 환자들이 가족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휴대폰 및 태블릿 161대를 병원에 기부했습니다.
-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하고 회사가 매칭하여 10만불을 기부했습니다.
- 미국 온라인 샵 매출의 5%를 성금으로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공익활동

- 뉴욕 타임스퀘어에 자사보유 옥외광고판을 통하여 사회적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뉴욕 시민들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하여 캠페인 동참 및 지속 독려하였습니다.
- 미국에서 10대 청소년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목적으로 수년간 진행되고 있는 LG Experience Happiness 프로그램의 무료 사용권을 저소득층 5천가구에 무상 지원했습니다.
- 무상보증기간이 4/1~6/30일 사이 종료되는 LG전자 전제품의 보증 기간을 6월말까지 연장했습니다.

4.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마스크 5000장 및 진단키트 2000개를 기부했습니다.



LG전자는 전세계에 약 140여 개의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국 임직원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 하고 현지 상황에 맞춰 재택근무 실시, 생산법인의 가동일정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전사 협의체 운영

전사 감염병 발병에 따른 위기대응기준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별로 대응방안을 실행하였고 활동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코로나19 전사 대응지침 배포
2. 자사 및 자회사 임직원 상황 점검 일일공유
3. 글로벌 출장 금지/제한 지침 안내
4. 마스크 배포 및 손 소독제 비치
5. 전 사업장 열화상 카메라 설치하여 유증상자 사업장 출입제한
6. 전 사업장에서 외부 방문객의 출입 금지 및 임직원들의 사업장간 출장을 금지
7. 해외 귀국 임직원, 동거가족 자가격리지침 안내
8. 재택근무 기준 및 재택근무자 예방수칙 안내
9.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안내
10. 사내 복지시설(헬스장, 카페 등) 사용 금지 조치
11. 구내식당에 가림막 설치 및 분산식사를 위해 사원식당 운영시간 연장, 도시락 등 테이크 아웃 메뉴 확대

글로벌 해외 사업장 지원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에서 감염자가 급속 확산되었던 시기에는 임직원이 사용할 마스크 30만장과 소독제 방호복등을 중국법인에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되어 마스크 수급이 어려울 때, 중국, 폴란드, 멕시코 법인에서 한국

사업장으로 마스크 등의 비상대응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전세계로 코로나19사태가 확산된 시점부터는 중국법인, LG상사, 서브원 등을 통해 비상대응물품을 지원방안을 다각화 하여 글로벌 전 사업장이 전략적으로 상호 협조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마스크 약 81만장을 포함한 손세정제 및 소독제, 장갑 등이 해외 사업장에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호흡장애와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산소공급기, 산소마스크 등을 일부 해외사업장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공급망(협력사) 지원

기존 400억원 규모였던 무이자 자금지원을 올해 550억원으로 확대하였고, 자금을 지원하는 일정도 지난해보다 4개월 앞당겨 협력사가 설비 투자, 부품 개발 등을 차질없이 이어가며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과 함께 저금리 대출을 위한 2,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협력사들에게 마스크 12만장과 손세정제 등을 전달하는 등 협력사가 긴박하게 필요로 하는 분야를 지원했습니다.

재택근무 운영

코로나19 관련 안전조치 차원에서 모든 임산부 직원은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였으며, 유치원·어린이집 휴원, 개학 연기 등으로 어린 자녀 육아 문제가 시급한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권장했습니다. 또한 출퇴근 혼잡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 8시간 근무체제 하에서 출퇴근을 당기거나 늦출 수 있는 '플렉시블 출퇴근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재택근무 기간 중 근태는 정상근무를 인정하거나 유급휴가를 부여해 임직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재택근무에 대비하여 외부에서 클라우드에 원활히 접속되도록 관련 장비와 네트워크 점검도 강화했습니다.

주재원 가족 복귀 지원

해외에 주재하는 직원 및 가족이 한국으로의 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공항 봉쇄나 항공기 운항 상황 등을 지속 확인하며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습니다.



LG화학

UNGC 가입
2014. 3. 17



LG화학은 1947년 창립 이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학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영국 브랜드 파이낸스가 발표한 '2020년 화학기업 25' 보고서에서 브랜드가치 4조원을 돌파하는 등 세계적인 화학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미국화학학회 ACS(American Chemical Society)가 발간하는 전문잡지 C&E(Chemical & Engineering News)이 선정한 '2018 Global Top 50 화학 회사' 순위에서 Top 10에 선정됐습니다.

LG화학은 'We connect science to life for a better future(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학을 인류의 삶에 연결합니다)'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축적한 지식과 기술, 솔루션이라는 과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의 지식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세상에 없던 혁신을 이루고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대표 화학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핵심 경쟁력으로 만들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탈바꿈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위를 살피고 서로 돕는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LG화학의 노력 전 세계적으로 위기인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 LG화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장 현실이며 실천적인 방법을 찾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협력회사, 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가까이 서서 함께 이겨내려는 LG화학의 지원 활동을 말씀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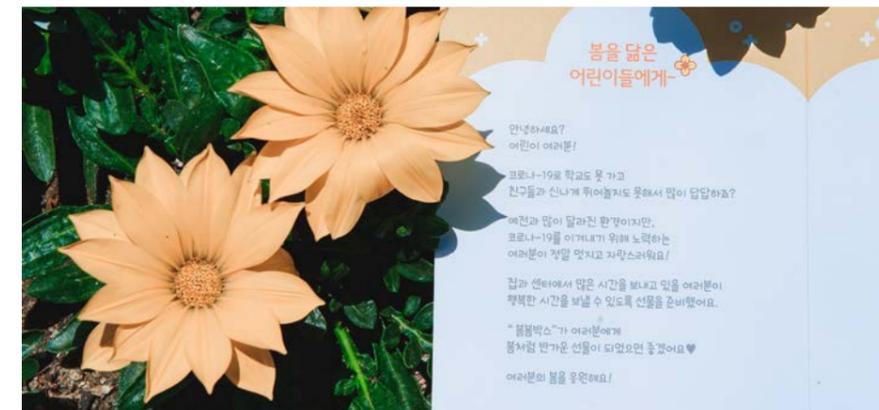
LG화학 봄봄박스

LG화학은 11일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봄을 선물한다'는 의미의 '봄봄박스'를 제작하여,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2천명 대상 총 3억원 규모의 '봄봄박스'를 지원했습니다.

LG화학은 지난달 대구/경북 지역과 사업장 소재 지역의 아동센터로부터 청소년 2천명을 추천 받은 후, 수혜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전설문을 통해 '학습지원', '보건위생', '정서지원' 등 총 3개의 키트로 구성된 '봄봄박스'를 전달했습니다.

'학습지원' 키트에는 무선 헤드셋과 10여개 종류의 문구류 등을 담았고, '보건위생' 키트에는 청소년들의 생활방역과 면역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손 소독 티슈, 핸드워시, 건강기능식품 등을 담았습니다. 또한 '정서지원' 키트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심리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간단히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과 운동용품 등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LG화학은 '키다리 아저씨'가 청소년들의 봄을 응원하기 위해 쓴 편지도 '봄봄박스'에 담아 진심 어린 격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협력회사 금융지원

LG화학은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상생 펀드' 및 '혁신성장 펀드' 등 총 1,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빠르게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상생 펀드'는 협력회사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629억 원 규모의 저리 대출 펀드이며, '혁신성장 펀드'는 협력회사의 핵심 R&D 과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432억 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 펀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를 위해 대출 심사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상반기 중에 빠른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은행과 함께 조성한 1,500억원 규모의 '투자지원 펀드'를 통해 협력회사의 설비 투자 등 운영자금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LG화학은 재정 안정성이 취약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LG전자와 함께 친환경 사회적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LG소셜캠퍼스'에 선정돼 활동 중인 사회적 기업에 총 2억원 규모 구호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10년간 LG소셜캠퍼스 사업을 통해 발굴되고 성장한 LG 소셜펠로우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지원을 실시했으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과 구성원이 '호혜와 연대'를 통해 함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릴레이 헌혈 캠페인

LG화학 노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헌혈인구 감소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릴레이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릴레이 헌혈 캠페인은 지난 3월 19일 여수공장에서 시작해 4월 말까지 오창, 청주, 대산, 익산 등 국내 12개 사업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전 사업장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국가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습니다.



자발적 모금활동 '만원의 나눔'

릴레이 헌혈 캠페인에 이어 사업장 임직원들의 또 다른 자발적 지원 활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LG화학 노사가 공동으로 '만원의 나눔'이란 모금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모금 활동으로 조성된 1억 원을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의 소상공인과 의료진에게 기부했습니다.

글로벌 지원

한편, LG화학은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중국, 폴란드, 인도네시아, 인도 등 해외 사업장 소재국 정부에 마스크, 위생장갑, 방호복과 같은 구호물품을 약 10억 규모로 지원했습니다.

이처럼 꾸준히 멈추지 않고 기업의 입장에서 노력하는 LG화학은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SK텔레콤

UNGC 가입
2007. 5. 14



이동전화, 무선데이터, 정보통신사업 등의 무선통신사업, 전화, 초고속인터넷, 데이터 및 통신망 임대서비스 등을 포함한 한국최대의 이동통신회사로서, 시장점유율은 무선통신사업(MVNO제외) 약 48%, 초고속인터넷부문은 약 26%, IPTV부문은 약 30%입니다. SK텔레콤과 관계사는 유무선 통신 사업과 미디어·보안·커머스·IoT·모빌리티 등 New Biz 사업을 제공하며, 5G 통신 기술을 비롯한 AI, 빅데이터 분석, IoT, 양자암호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AI-Mobility 영역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중이며, Digital Transformation (DT)과 AI를 기반으로 Global ICT Leader라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SK텔레콤은 NCSI, KCSI, KS-SQI 등 대한민국 3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최장 기간 연속 1위에 올랐으며, 고객, 구성원, 이해관계자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경제 발전 및 인류의 행복에 공헌합니다.



SKT는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사회,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상생을 위해 '소상공인 사업지원, ICT및 AI기반 디지털 포용정책, 영상/컨텐츠/교육 분야 등 3대 영역'에서 선도적 대응중입니다.

1)소상공인 사업지원 분야

유통망·협력사 위한 1100억 규모 상생안 마련

- 전국 유통망·네트워크 관리 협력사 등 현장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상으로 대리점 유통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350억 원 지급 및 매장 운영비 50억을 지원합니다.
- 협력사 상반기 공사 대금 일부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대금 330억을 선지급하였습니다.
- 대구/경북 유통망에는 휴대폰 매입대금 400억 결제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 동반성장 협약 맺은 중소기업에는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 SK브로드밴드도 110억 규모 협력사 유통성 제고 지원책에 동참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마케팅 서비스 'T-Deal'로 중소기업 지원

- 빅데이터 분석해 상품별로 구매 가능성 높은 고객에게 맞춤형 상품 안내를 제공합니다.
-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은 무료, 상품 판매 통한 SKT 수익은 전액 사회 환원합니다.
- 전 과정 비대면으로 진행.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최소화하며 중소기업인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2만 명에게 '사장님 안심경영팩' 제공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2만 명에게 매장 운영 패키지를 1년간 무료 제공합니다.
- '사장님 안심경영팩' 신청하면 누구나 즉시 이용...매장운영에 필요한 카드 매출 조회, 매장 위치 홍보, 알바 구인·관리 등을 원스톱 제공합니다.
- SK ICT 패밀리社, 전국 소상공인 대상 '사장님 안심경영팩' 공동 캠페인: 전국 28개 지역 '5GX

부스트파크' 제휴처 대상, ADT 캡스와 SK브로드밴드는 보안 서비스, 인터넷 및 IPTV 사용중 소상공인 고객 대상으로 '사장님 안심경영팩' 1년 무료혜택을 제공합니다.

한국 스마트팩토리데이터협회와 5G 기반 제조 혁신 협력

- 중견/중소·소공인 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 SKT, 참여 기업에 5G 빅데이터 솔루션 '메타트론 그랜드뷰'를 1년 무상 제공합니다.
- '메타트론 그랜드뷰' 이용 시, 15% 비용 절감 및 설비 수명 20% 연장 가능합니다.
- 신규 구축 및 고도화 비용 부담을 줄여 스마트공장 확산 및 제조 혁신을 이끌 것입니다.

2) ICT및 AI기반 디지털 포용정책

SK텔레콤 - 도이치텔레콤: '글로벌 코로나 위기, ICT로 함께 극복'추진

- SKT CEO, 양사 경영진 20여 명 참석 화상 컨퍼런스에서 'K - ICT' 협력을 제안하였습니다.
- 한국 5G·AI·지능형 네트워크 기술로 '코로나 부하' 걸린 유럽 위기 극복을 지원합니다.
- 가교 역할 '테크 합작회사' 설립 계약. SKT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독일로 파견합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ICT기업이 앞서서 변화 이끌어야" ... 5G 생태계를 확대합니다.
- 비대면 플랫폼과 생활 안전·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AI 기반 스마트 에이전트 솔루션, AR/VR 서비스 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 5G /MEC기술/클라우드 기반 비대면 솔루션 스타트업 공동 투자·AR/VR 협력을 추진합니다.

'디지털 포용 정책' AI 돌봄 서비스 (NUGU 시니어) 제공

-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등과 협력 기반 '코로나19 능동 감시 시스템 (AI 스피커가 자동 으로 전화해 코로나 관련 응답자의 건강 상태를 Check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안전 취약 계층(노인, 장애인 등) 대상, AI 스피커를 활용한 건강, 복지, 행정 안내 서비스 확대 및 강화 예정입니다.
- 행복커뮤니티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의 일환인 '두뇌톡톡' 서비스를 통해 자연스러운 인지교육을 제공하여 치매 지연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SK텔레콤 - 경북경찰청, 빅데이터 기술로 국민 안전 제공

- 코로나19 종결까지 실시간 유동인구 분석 서비스 '지오비전'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 경북경찰청, '지오비전' 활용해 인구 밀집 지역 중심으로 '핀 포인트' 순찰합니다.
- 국내 유일 5분 단위로 실시간 유동인구 분석... 정밀도는 기존 대비 5배 향상되었습니다.

3) 영상/컨텐츠/교육 분야

AI 명상서비스 '누구 마음보기' 제공

- 사내 구성원 '마음 챙김' 프로그램으로 기획, 코로나19로 일반 고객에도 오픈하였습니다.
- 15만 다운로드 명상 앱 '마보'와 손잡고 총 41종의 명상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마보'가 서울의료원과 협업하여 격리환자, 의료진들을 위해 만든 콘텐츠도 포함합니다.

온라인 개학 맞아 '서로' 가상교실 제공

- 김포 신흥초등학교와 3개 학급 대상으로 '서로' 가상교실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 그룹 영상 통화 '서로' 키즈 안심 앱 'ZEM' 등을 통하여 원격 수업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 "시범 서비스로 얻은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른 시일 내 상용화할 것"입니다.

'점프 AR' 오픈 갤러리, 어린이들에게 'AR 놀이터'로 제공

- AR 기반 동물 사진·영상 공유·서비스 공개 2주간 약 3천 여장 사진을 업로드하였습니다.
- 레서판다·알파카 등 AR동물과 찍은 사진들을 SNS로 이용자와 공유합니다.
- 코로나19로 집 밖 못 나가는 어린이들에게 손안의 가상 놀이터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 및 개혁을 통한 '상시 Digital Work' 제도 시행

-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일하는 방식의 시간/공간/보안에 대한 Reframing'을 선도적으로 실행하는 계기로 삼아서 구성원 개인에 대한 자율적 Empowering을 회사가 부여합니다.
- SK텔레콤은 2017년부터 일하는 방식 변화를 고민했으며, 클라우드·모바일에 기반을 둔 업무환경을 구축하는 과제를 추진, 2019년 8월 MS와 Digital Workplace를 구축하여 MS 통합협업 플랫폼인 'Teams'를 전사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 Teams 는 실시간 채팅, 문서 공동 편집, 영상 회의 등 다양한 형태의 협업이 가능하며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시간 및 장소와 무관하게 접속합니다.
- 문서의 공유/편집은 물론 화상 회의까지 실시간으로 이용 가능하므로 재택근무시 적극 활용 가능합니다. (Remote Digital Work System: 원격회의/문서 공동 작업/ 외부 BP와의 원격회의/팀채널 개설, 소통 등 다양한 Communication기능 등)
- 재택근무 플랫폼 '서로 영상통화, 최대 55명 동시 영상통화·채팅. SKT T전화 '서로' 등
- 2월말~4월초까지의 6주간 재택근무시행이후 기 축적된 Hybrid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COVID19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에 유연하고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해, 조직/지역에 따라 자율적으로 근무 형태를 운영하는 '상시 Digital Work'를 시행중입니다.

업계 최초 '콜센터 구성원' 재택근무 선도적 전격 시행 ('20년 3월 12일)

- 희망하는 구성원 모두 재택근무 실행, 통신 업계 최초로 선도적으로 조치하였습니다.
- 사무실 근무하는 구성원 위한 감염 예방 지원책도 대폭 강화. 사무실과 같은 수준의 근무 환경 구축 등 업무 시스템을 최대한 지원합니다.
- 불가피하게 출근하는 구성원 대상 ▲마스크 등 방역물품 상시 제공 ▲위생물품 구매 지원 ▲사무실 내 근무 이격 거리 보장 등 감염 예방 지원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실시간 생중계 첫 '온라인 주총' 개최('20년 3월 26일)

- 주총현장 동영상 생중계, 온라인에서 질문하면 경영진이 현장에서 답변하였습니다..
- CEO가 주주와 열린 소통. 5G 및 New ICT 사업 성과와 올해 경영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 온라인 생중계, 경영진의 현장 프레젠테이션과 실시간 질의응답, 전자투표제 선제적 시행 등 새로운 시도는 소액 주주들의 알 권리를 제고함은 물론 국내 주총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는 우리에게서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우리에게 하나의 인류로 함께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Tedros Adhanom Ghebreyesus) 박사, WHO 사무총장